

제1차 전라남도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2024~2033)

2024. 4.



전라남도
JeollaNamdo

목 차

I. 개요 및 추진경과	1
II. 국내·외 정책동향	5
III. 전남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	9
IV. 비전 및 목표	17
V. 기본계획 추진과제	21
1. 온실가스 감축대책	21
2.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53
3. 15대 핵심사업	84
VI.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87

I 개요 및 추진경과

1. 수립배경

□ 수립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 기본법)」 제11조(시·도 계획의 수립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광역 시·도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 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광역 시·도는 국가 기본계획 수립·변경 이후 6개월 이내에 시·도 기본계획 수립·변경¹⁾
-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 7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전라남도는 국가 기본계획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계획기간 및 수립주기

- 10년을 계획기간(2024~2033년)으로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시행²⁾

1) 최초의 시·도 기본계획은 최초의 국가기본계획 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 수립(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3조제3항)

2) 국가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20년(2023~2042년)임.

□ 도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³⁾

-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전남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이행대책
- 전남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3) 탄소중립기본법 제11조제2항

2. 계획의 성격

□ 계획의 성격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지역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실천계획
-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포괄적 계획
 - (온실가스 감축 대책)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이행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방안 등⁴⁾
 - (대응기반 강화 대책)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내·외 지자체 협력, 탄소중립·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기후위기가 공유 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녹색성장 촉진 등

□ 다른 계획과의 관계

- 상위계획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국가 기본계획
- 하위계획 : 22개 시·군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 유관계획 : 도 종합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도 환경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 지역산림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⁵⁾

4)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이행대책은 에너지·전환, 산업 부문을 제외한 도로·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폐기물), 흡수원 등 지자체 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수립

5)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제2호

3. 추진경과

□ ('21. 3월)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 비전 선포

- 비전 :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
- 목표 : 2018년 직접배출량 대비 2030년 40%, 2050년 탄소중립

□ ('22. 12월) 2050 탄소중립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 비전 : 탄소 없는 건강한 미래, 청정 전남
- 목표 :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40%, 2050년 넷제로

□ ('23. 9월 ~ '24. 4월) 제1차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 ('23. 9월) 전남도-22개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회의
- ('23. 10월) 전남도 관계부서 실무추진단 회의
- ('23. 12월) 산업계, 학계, 농림축산수산단체, 시민단체, 청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 ('23. 12월 ~ '24. 2월) 도민 탄소중립 아이디어 공모
- ('24. 2월) 전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
- ('24. 3월/4월)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의결

II 국내·외 정책동향

1. 글로벌 동향

□ 기후위기, 인류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인식

-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인류를 위협할 상위 5개 요인 중 4개가 기후·환경 관련 내용인 것으로 분석⁶⁾
 - (1위) 기후변화 완화 실패, (2위) 기후변화 적응 실패, (3위) 자연재해 및 극한 기상 현상, (4위)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 파리협정 체결 및 1.5℃ 특별보고서 승인

- UNFCCC⁷⁾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⁸⁾에서 파리협정을 만장일치로 채택('15. 12월)
 - 금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 더 나아가 1.5℃ 까지 억제하기 위해 모든 당사국이 노력하기로 합의
- IPCC⁹⁾는 제48차 총회에서 1.5℃ 특별보고서 승인('18. 10월)
 -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

6) World Economic Forum(2023), Global Risks 2023.

7)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8) COP : Conference of Parties

9)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2. 정부 동향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 12월)

- “적응적 감축에서 탄소중립·경제성장·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이란 비전 하에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등 3+1 전략 제시

□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1. 9월 / '22. 3월 시행)

- (주요 내용)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 중간단계 목표(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 탄소중립 정책수단, 정의로운 전환, 중앙과 지역의 협력 등
- 시행령('22. 3월 의결) 주요 내용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명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정의로운 전환 시책 마련, 기후대응기금 설치, 탄소중립 지원센터 등 실천기반 마련 등

□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¹⁰⁾ 상향안 확정('21. 10월)

-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위해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는 A안과 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탄소포집·이용 및 저장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으로 구성

10) NDC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 2030 NDC 상향안은 기존 2018년 대비 26.3% 수준이던 2030년 감축목표를 4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

□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22. 10월)

- (3대 정책방향) 책임있는 실천, 질서있는 전환, 혁신주도 탄소중립·녹색성장
- (4대 전략)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 4월)

-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등 10개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과제와 기후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이행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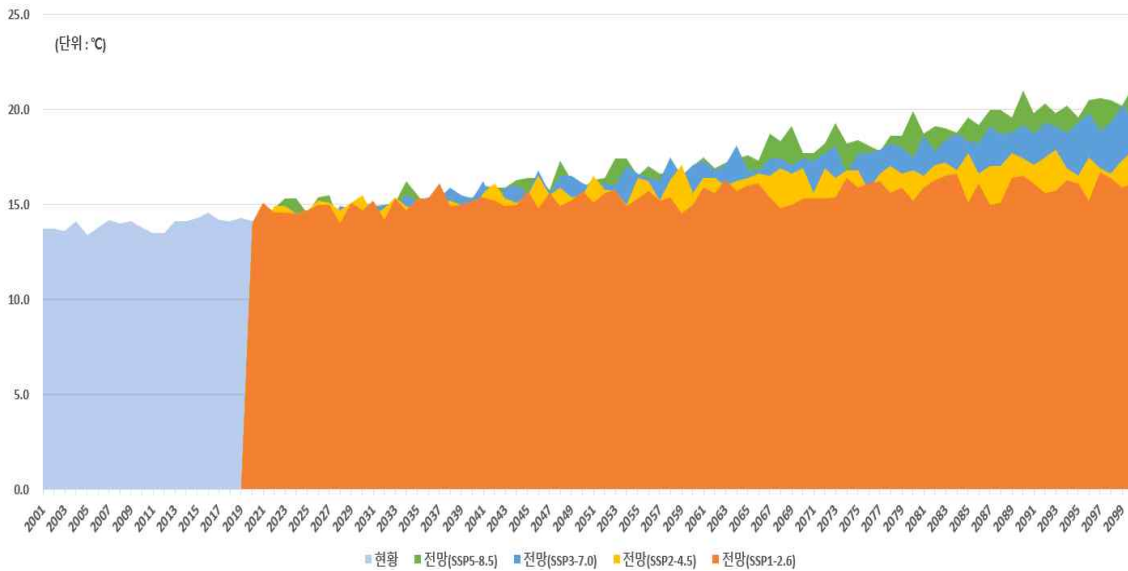
<표 II-1> 국내 탄소중립 정책 변화

구분	주요 내용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 (‘20.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적응적 감축에서 능동적 대응으로 - (전략)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	
탄소중립기본법 (‘21. 9월 제정/ '22. 3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 탄소중립 비전, 국가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등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감축목표 확정 (‘21.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나리오 A안) 화석발전 전면 중단, 그린수소 생산 등 - (시나리오 B안) CNG 발전 일부 운영, CCUS 활용 등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6.3 → 40.0%)
↓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22.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전) 탄소중립,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 - (전략)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함께하는 탄소중립, 능동적인 탄소중립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축목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 (부문별 감축정책)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10개 부문 37개 과제 - (이행기반 강화정책)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

Ⅲ 전남의 기후변화 대응 여건

1.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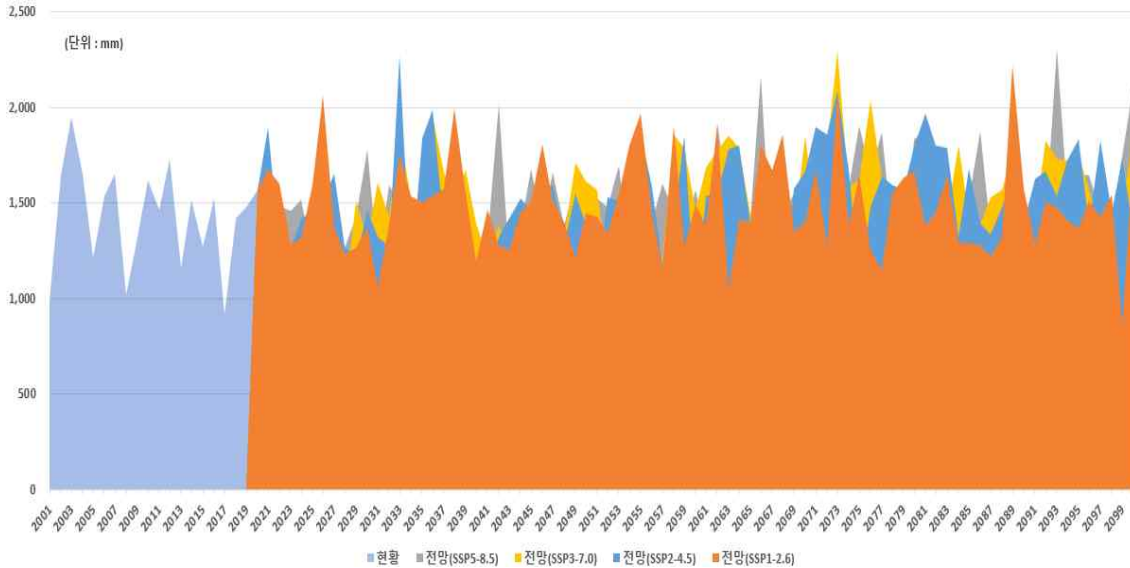
- 1991~2020년 동안 전남의 연평균 기온은 13.9°C이었고, 2081~2100년 연평균 기온은 16.0~19.9°C에 이를 전망
 -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은 전국 평균(12.5°C) 대비 1.4°C 높았음.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limate/>),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Ⅲ-1> 전남의 연평균 기온 현황 및 SSP 시나리오 기반 연평균 기온 전망

- 1991~2020년 동안 전남의 연평균 강수량은 1,392mm이었고, 2081~2100년 연평균 강수량은 1,441~1,608mm가 될 전망

- 최근 30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전국 평균(1,331mm) 대비 61mm 많았음.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limate/>),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을 토대로 재구성
 <그림 III-2> 전남의 연평균 강수량 현황 및 SSP 시나리오 기반 연평균 강수량 전망

- 1991~2020년 동안 전남의 연평균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는 각각 6.2일, 8.4일이었고, 2081~2100년 연평균 폭염일수 및 열대야일수는 각각 33.9~96.3일, 37.2~85.6일로 전망

<표 III-1> 전남의 연평균 폭염일수·열대야일수 현황 및 전망

(단위 : 일)

구분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SSP1 -2.6	SSP2 -4.5	SSP3 -7.0	SSP5 -8.5	SSP1 -2.6	SSP2 -4.5	SSP3 -7.0	SSP5 -8.5	
현황	1991~2020	6.2				8.4			
전망	전반기 (2021~2040)	21.8	24.5	23.0	24.0	28.0	29.0	28.4	27.9
	중반기 (2041~2060)	29.1	33.9	39.7	42.4	35.6	40.3	43.3	45.5
	후반기 (2081~2100)	33.9	50.0	79.8	96.3	37.2	54.5	75.5	85.6

자료 : 기상자료개방포털(<https://data.kma.go.kr/climate/>), 기후정보포털(<http://www.climate.go.kr/>)을 토대로 재구성

2. 에너지 수급 현황(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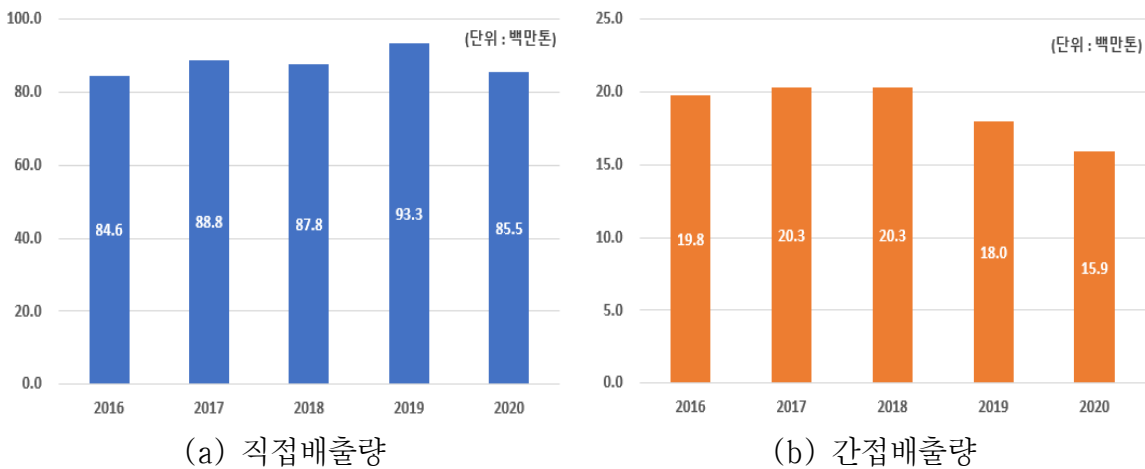
- 전남의 1차 에너지 생산량 및 공급량은 각각 10.7백만TOE (전국 대비 17.8%), 56.4백만TOE(전국 대비 18.4%)
 - 지역별 1차 에너지 생산량은 경북(19.1백만TOE), 전남, 부산(7.2백만 TOE), 울산(5.3백만TOE) 순이었고,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충남(59.2 백만TOE), 전남, 경북(35.3백만TOE), 경기(34.1백만TOE) 순
 - 전남의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생산량은 원자력(6.8백만TOE),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원(3.9백만TOE), 석탄(0.04백만TOE) 순이었고,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석유(27.6백만TOE), 석탄(13.3백만TOE), 원자력 (6.8백만TOE) 순

- 전남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6.3 백만TOE
 - 지역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전남, 충남(38.3백만TOE), 경기(31.5 백만TOE), 울산(30.0백만TOE) 순
 - 전남의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최근 10년간('12~'21년) 23.2% 증가
 - 동기간 전국의 최종에너지 소비량 증가율(14.7%) 대비 8.6%p 높았음.
 - 산업부문의 최종에너지 소비량 비중(90.4%)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에너지원 중에서는 석유 비중(59.6%)이 가장 높았음.

3.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 2020년 기준 전남의 온실가스 직접배출량¹¹⁾은 85.5백만톤, 간접배출량¹²⁾은 15.9백만톤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년도인 2018년 기준 직접배출량은 87.8백만톤, 간접배출량은 20.3백만톤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2),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6~2020)

<그림 III-3>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 전체 배출량(79.65백만톤)¹³⁾ 대비 부문별 비중은 산업(64.1%), 에너지(전환)(12.8%), 농축산(7.8%), 건물(7.1%), 수송(6.5%), 폐기물(1.6%), 기타(0.1%) 순

- '18년 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 산업 63.6, 에너지(전환) 13.0, 건물 7.9, 농축산 7.6, 수송 6.2, 폐기물 1.6, 기타 0.1

11) 시도별 직접배출량(백만톤) : 충남 144.0, **전남 85.5**, 경기 81.4, 인천 58.5, 강원 53.1, 울산 47.1

12) 시도별 간접배출량(백만톤) : 경기 63.1, 충남 25.6, 서울 24.8, 경북 21.5, 경남 16.9, **전남 15.9**

13) 직접 및 간접배출량 합에서 중복되는 공공전기 및 열생산(1A1a), 폐기물 처리(5) 항목을 제외한 값

-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남의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¹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44~16.49백만톤 수준
 - 흡수원(LULUCF)¹⁵⁾을 포함한 순배출량은 10.92~13.45백만톤 범위

<표 III-2> 최근 5년간('16~'20년) 전남의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14) 해당 지역 전체 배출량 중 국가가 관리하는 부문(에너지(전환), 산업, 수송의 항공, 철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15) LULUCF(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산림

(단위 : 백만톤)

구분	전체 배출량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 배출량					
	2016	2017	2018	2019	2020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전환)	11.94	10.63	10.90	11.92	10.21	-	-	-	-	-	
산업	52.10	55.80	53.47	56.84	51.08	-	-	-	-	-	
수송	4.80	5.20	5.22	5.37	5.15	4.59	4.67	4.70	4.81	4.68	
건물	5.98	6.36	6.65	6.15	5.68	5.98	6.36	6.65	6.15	5.68	
농축산	6.06	6.24	6.36	6.34	6.19	3.77	3.76	3.81	3.75	3.78	
폐기물(환경)	1.41	1.37	1.34	1.30	1.30	1.41	1.37	1.34	1.30	1.30	
기타	0.06	0.07	0.09	0.08	0.05	-	-	-	-	-	
LULUCF	-4.83	-3.78	-3.05	-2.77	-2.61	-4.83	-3.78	-3.05	-2.77	-2.61	
합계	LULU CF 제외	82.35	85.68	84.02	88.01	79.65	15.75 (19.12)	16.16 (18.86)	16.49 (19.63)	16.01 (18.20)	15.44 (19.38)
	LULU CF 포함	77.52	81.90	80.97	85.24	77.04	10.92 (14.09)	12.38 (15.11)	13.45 (16.61)	13.25 (15.54)	12.82 (16.65)

주 : () 안 수치는 전체 배출량 대비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의 배출량 비중임.

자료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2),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2016~2020)을 토대로 재구성

- 전남의 2030년 및 203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79.6백만톤, 78.6백만톤으로 전망됨¹⁶⁾.
-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15.29백만톤, 2033년 15.09백만톤으로 전망됨.

<표 III-3>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전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단위 : 백만톤)

구분	전체 배출량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 배출량				
		합계	수송	건물	농축산	폐기물
2021	83.55	16.05	4.63	6.29	3.76	1.37
2022	82.89	15.92	4.59	6.24	3.73	1.36
2023	82.33	15.81	4.56	6.20	3.71	1.35
2024	81.86	15.72	4.53	6.16	3.68	1.34
2025	81.44	15.64	4.51	6.13	3.67	1.33
2026	81.02	15.56	4.49	6.10	3.65	1.33
2027	80.65	15.49	4.47	6.07	3.63	1.32
2028	80.27	15.42	4.45	6.04	3.61	1.31
2029	79.94	15.35	4.43	6.02	3.60	1.31
2030	79.61	15.29	4.41	6.00	3.58	1.30
2031	79.24	15.22	4.39	5.97	3.57	1.30
2032	78.91	15.15	4.37	5.94	3.55	1.29
2033	78.58	15.09	4.35	5.92	3.54	1.29

- 전남의 2030년 및 2033년 기준 흡수량은 각각 1.49 백만톤, 1.42백만톤으로 전망¹⁷⁾

16) 2016~2018년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전남의 장래 추계인구를 고려해 전망

17) 산림청(2023), 2030 NDC 달성을 위한 시·도별 산림 흡수원 부문 목표를 토대로 전망

4. 기존 대책 성과 평가

- 2050 탄소중립 전남 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96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2023년 실적은 2,035.0천톤(목표 대비 134.3%)으로 분석¹⁸⁾
 - 부문별 목표 대비 달성률은 청정에너지 169.2%, 청정산림 99.5%, 청정생활 85.7%이었음.
 - 목표 대비 달성률이 100% 이상인 매우 우수 등급 과제는 37개, 60% 미만인 미흡 과제는 13개로 분석
 - (매우 우수)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등 37개 사업
 - (우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등 16개 사업
 - (보통)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바다 정원화 사업 등 4개 사업
 - (미흡)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공동체 정원 조성 등 13개 사업

- 제3차 전라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의 2023년 이행점검 결과, 50개 사업 중 매우 우수 등급은 44개로 평가
 - 물관리 부문 7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제외하고, 산림·생태계(7개), 국토·연안(7개), 농수산(12개), 건강(15개), 산업·에너지(3개) 부문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

18) 정성사업 26개를 제외한 정량사업 70개에 대해서만 감축량 산정

5. 도민 인식조사¹⁹⁾

- 전체 응답자 중 85.7%가 탄소중립이란 용어를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59.0%가 전남의 탄소중립 정책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고 응답
 - 탄소중립에 대한 정보 취득 경로는 TV/라디오(42.2%), 인터넷 뉴스(21.4%), 신문/잡지(10.0%), 관공서 등의 게시판(9.6%) 순
 - 전남의 탄소중립 정책이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 비율은 70.7%,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 비율은 60.8%,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 비율은 54.5%로 분석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라남도는 국가와의 공동 노력(35.4%), 지역 특화사업 개발 및 추진(30.2%), 교육 활성화(13.4%)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친환경 실천 행동 중 참여 의향이 높았던 것은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81.0%), 불필요한 물건 구매하지 않기(80.7%) 전력 사용 줄이기(76.1%) 등의 순
 - 친환경 실천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습관화 미흡(25.3%), 불편함 감수(19.9%), 고가의 친환경 제품(13.9%) 등의 순이었음.

19) 2023. 11. 20. ~27.(8일) 동안 도내 거주 중인 15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

IV 비전 및 목표

1. 비전 체계



* 2018년 비산업 부문(16.5백만톤) 기준(2030년 배출전망치(BAU) 포함)

* Decarbonization(탈탄소화) / Networking(정책간 연계) / Action(도면 실천·행동)

<그림 IV-1> 전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비전 체계도

2. 온실가스 감축목표

- 2030년과 2033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배출량(16.49백만톤, 지자체 관리 권한 부문 기준) 대비 각각 40.37%(6.7백만톤), 55.39%(9.1백만톤)로 설정²⁰⁾
 - 2030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은 수송 1.86백만톤, 건물 1.10백만톤, 농축산 1.02백만톤, 환경관리 0.68백만톤이며, 산림 등의 신규 조성을 통해 0.50백만톤 흡수

<표 IV-1> 2030년 기준 부문별 감축량 및 감축 후 배출량

(단위 : 천톤, %)

구분	기준 배출량 (‘18년)	전망치 (‘30)	감축량(2030년 기준)			감축 후 배출량	감축 비율
			BAU	사업·정책	총량		
수송	4,699.9	4,408.9	291.1	1,573.7	1,864.7	2,835.2	39.68
건물	6,645.5	5,995.1	650.5	447.7	1,098.2	5,547.4	16.53
농축산	3,806.6	3,583.2	223.5	798.4	1,021.8	2,784.8	26.84
환경관리	1,340.9	1,302.6	38.3	645.6	683.9	657.0	51.00
LULUCF	(3,045.7)	(1,489.3)	-	(499.9)	(1,989.2)	-	-
합계 (LULUCF의 BAU 제외)	16,493.0	15,289.6	1,203.3	3,965.2	-	-	-
합계 (LULUCF의 BAU 포함)		13,800.3	(1,556.3)	-	6,657.9	9,835.1	40.37

20) 국가 기본계획과 동일하게 2018년 기준 배출량은 총배출량(LULUCF 제외)으로 하고, 2030년과 2033년의 감축 후 배출량은 순배출량(LULUCF 포함)을 기준으로 함.

- 2033년 부문별 목표 감축량은 수송 2.98백만톤, 건물 1.53백만톤, 농축산 1.44백만톤, 환경관리 1.19백만톤이며, 산림 등의 신규 조성을 통해 0.58백만톤 흡수

<표 IV-2> 2033년 기준 부문별 감축량 및 감축 후 배출량

(단위 : 천톤, %)

구분	기준 배출량 (‘18년)	전망치 (‘33)	감축량(2033년 기준)			감축 후 배출량	감축 비율
			BAU	사업·정책	총량		
수송	4,699.9	4,351.8	348.1	2,627.1	2,975.20	1,724.7	63.30
건물	6,645.5	5,917.4	728.1	802.0	1,530.16	5,115.4	23.03
농축산	3,806.6	3,536.8	269.9	1,168.8	1,438.67	2,368.0	37.79
환경관리	1,340.9	1,285.7	55.2	1,134.1	1,189.29	151.6	88.69
LULUCF	(3,045.7)	(1,420.8)	-	(580.9)	(2,001.7)	-	-
합계 (LULUCF의 BAU 제외)	16,493.0	15,091.7	1,401.3	6,312.9	-	-	-
합계 (LULUCF의 BAU 포함)		13,670.9	(1,624.9)	-	9,135.01	7,358.0	55.39

□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표 IV-3> 연도별·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량

(단위 : 백만톤)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BAU, LULUCF 포함	4.00	4.28	4.66	5.09	5.53	6.05	6.66	7.43	8.26	9.13
	순수 감축사업	0.96	1.29	1.71	2.20	2.71	3.29	3.97	4.69	5.47	6.31
수송		0.13	0.28	0.51	0.75	1.01	1.28	1.57	1.90	2.25	2.63
건물		0.13	0.16	0.19	0.22	0.26	0.35	0.45	0.55	0.67	0.80
농축수산		0.32	0.37	0.43	0.51	0.58	0.68	0.80	0.92	1.04	1.17
환경관리		0.05	0.12	0.20	0.30	0.40	0.51	0.65	0.79	0.96	1.13
흡수원(신규)		(0.33)	(0.36)	(0.39)	(0.42)	(0.45)	(0.47)	(0.50)	(0.53)	(0.55)	(0.58)
BAU(감축량)		0.77	0.85	0.93	1.01	1.08	1.14	1.20	1.28	1.34	1.40
기존 LULUCF (전망치)		(2.27)	(2.14)	(2.01)	(1.88)	(1.75)	(1.62)	(1.49)	(1.47)	(1.44)	(1.42)

주 : 순수 감축사업 합계는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흡수원(신규) 등 지자체 관리권한 부문의 합이고, BAU와 LULUCF를 포함한 합계는 순수 감축사업과 BAU 감축량, 기존 흡수원(LULUCF)의 전망값이 반영된 합계임.

V

기본계획 추진과제

1. 온실가스 감축 대책

1.1 이행 로드맵

□ 연도별·부문별 이행 목표(목표 배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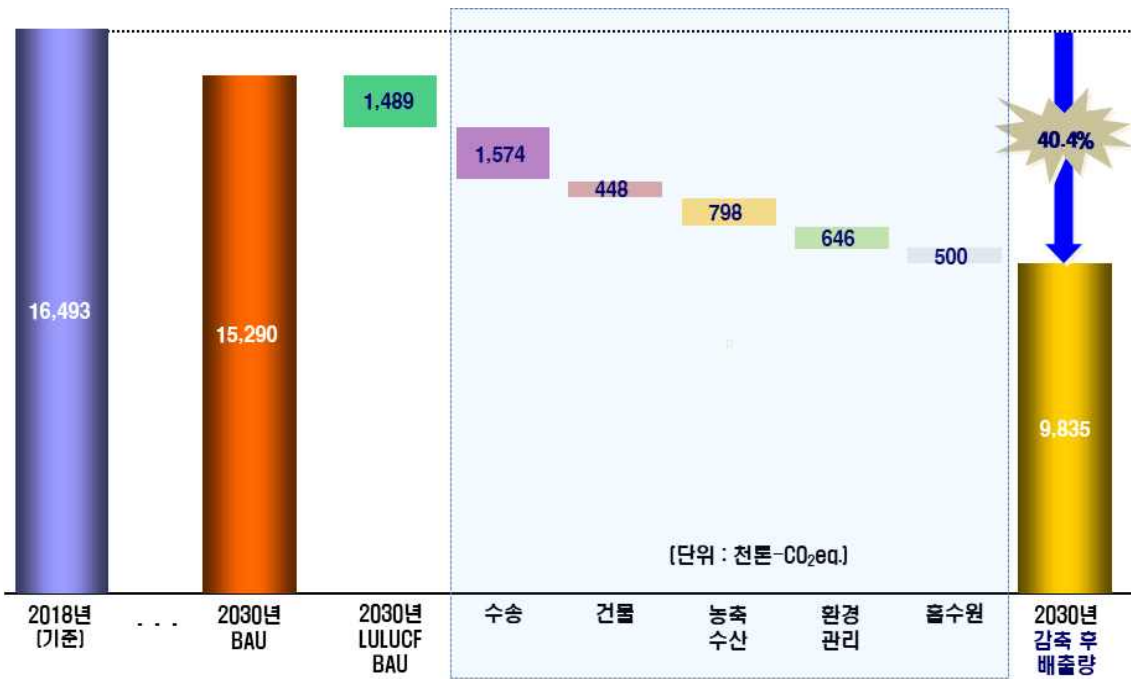
- ('18년) 16.49백만톤 → ('30년) 9.84백만톤(△ 40.4%) → ('33년) 7.36백만톤(△ 55.4%)

<표 V-1> 계획기간 내 부문별·연도별 감축 후 배출량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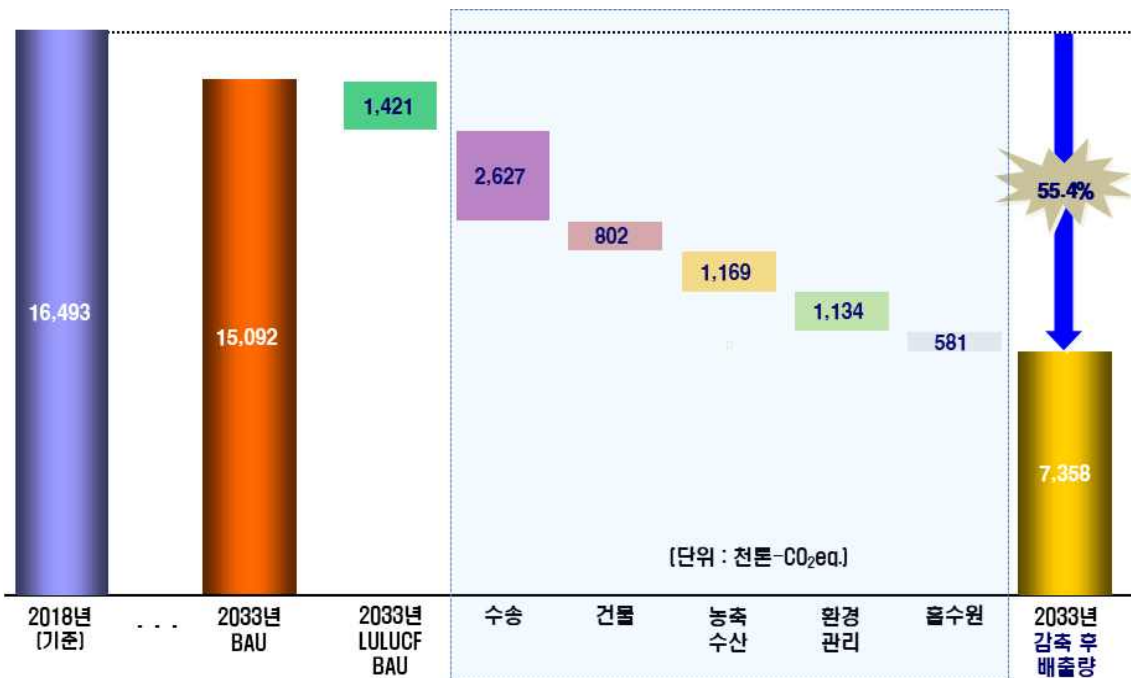
(단위 : 백만톤)

구분	2018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합계	16.49	12.50	12.21	11.84	11.41	10.96	10.45	9.84	9.06	8.24	7.36
수송	4.70	4.41	4.23	3.98	3.71	3.43	3.15	2.84	2.49	2.12	1.72
건물	6.65	6.04	5.98	5.91	5.85	5.78	5.67	5.55	5.42	5.27	5.12
농축수산	3.81	3.36	3.29	3.21	3.12	3.03	2.92	2.78	2.65	2.51	2.37
환경관리	1.34	1.29	1.21	1.13	1.02	0.91	0.80	0.66	0.51	0.33	0.15
LULUCF (신규 흡수원포함)	(3.05)	(2.60)	(2.50)	(2.40)	(2.30)	(2.19)	(2.09)	(1.99)	(1.99)	(2.00)	(2.00)

주 : 2018년 합계는 LULUCF 미포함



(a) 2030년



(b) 2033년

<그림 V-1> 2030년 및 2033년 기준 부문별 감축 경로

1.2 부문별 추진방향 및 중장기 감축로드맵

1.2.1 수송 부문

- (추진 방향) 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② 수요관리 강화 및 친환경 문화 확산, ③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 융복합



<그림 V-2>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배출량(4,699.9천톤) 대비 39.7%(1,864.7천톤), 2033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63.3%(2,975.2천톤)²¹⁾

21) BAU(자연감축량) 포함

<표 V-2> 수송 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단위 : 천톤)

구 분		2018년 (기준)	2025년	2030년	2033년
계획 감축량	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176.3	1,474.7	2,508.6
	② 수요관리 강화 및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	100.2	87.7	102.2
	③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 융복합	-	3.1	11.2	16.2
BAU(자연감축량)		-	189.9	291.1	348.1
총 감축량		-	469.4	1,864.7	2,975.2
감축율		-	9.99	39.68	63.30
감축 후 배출량		4,699.9	4,230.5	2,835.2	1,724.7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

-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 전기차(승용, 화물, 버스 등 312천대) 및 수소차(승용, 버스 등 108천대) 보급
 - 도내 공공기관 차량 구매·교체 시 무공해차 의무 구매 조기 실현
 - 전기차 충전기(20천기), 수소충전소(38개소) 등 충전인프라 확충
- 경유 버스 및 청소차 CNG 전환
 - 도내 경유 기반의 버스, 청소차 등 대형차 연료를 천연가스(CNG)로 전환
- 경유차 친환경화
 - 노후 경유차량 대상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 LPG 화물차(1톤) 및 LPG 어린이집 통학차량 구매시 보조금 지원
- 노후 건설기계 친환경 전환
 - 노후 지게차, 굴삭기 대상 신형 엔진교체, 내부세척, 주변 부품 교체 등 지원
 - 굴삭기 등 도내 경유 기반 건설기계 전동화
- 친환경 녹색 이동수단(철도) 확충
 - 보성~임성리 구간 전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광주-무안공항-목포), 광주-화순 구간 광역철도 등 순환 철도망 구축

② 수요관리 강화 및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

- 자동차 온실가스 연비기준 강화(정부정책 연계)
 - 강화된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적용한 신차 구입 및 운행

- 내연기관 차량 신규등록 제한 사전 대응(정부정책 연계)
 - 정부의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35년 예정)에 대응한 도내 영향 분석
 - 관련 조례 등 신규 내연기관 차량 등록 금지에 대응한 제도 정비
-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차세대 교통수단(트램) 도입
 -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 차세대 교통수단(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 남도패스(전남형 K-패스) 도입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K-패스) 도내 전 시·군 도입
 - 전남도 특성에 맞는 남도패스 모델 개발 및 시행
-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단계적 시행
 - 어르신, 아동·청소년 등 선별적 무료버스 확대
 - 전면 무료버스 운영 확대 및 권역별 무료 시내버스 연계
- 친환경 운전(Eco Driving) 활성화
 -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가입 확대, 친환경운전 도민 서포터즈 운영 등
- 승용차 요일제 운영 확대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승용차 요일제 운영 확대 및 카 셰어링 활성화
- 공공자전거 및 개인이동수단(PM) 이용 활성화
 - 스테이션, 자전거 도로, 공유자전거 앱 등 공공자전거 이용 기반 확충
-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 공유 플랫폼 서비스 구축
 -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 친환경 모빌리티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발

③ 유희부지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술 융복합

- 솔라로드(Solar Road) 조성
 - 잔여지, 폐도로, 방음터널 등 도내 도로 유희부지 태양광 잠재량 조사
 - 고속도로 유희부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버스 차고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도내 버스차고지 실태조사 및 태양광 잠재력 평가(설치 가능면적 등)
 - 버스 차고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공항·역·터미널·정류장 녹색공간 조성
 - 공항·역·터미널 내 실내정원 조성
 - 정류장 지붕 및 벽면에 녹색지붕(녹화) 조성
-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구축
 - 도내 주유소 및 LPG 충전소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사업장 환경 리모델링 지원
- E-Fuel 생산기술 개발 및 실증
 - 재생합성연료(e-fuel) 생산공정 개발 및 공정 최적화
 - e-fuel 안전성 검토, 자동차·선박 모빌리티 적용 실증 등 추진

1.2.2 건물 부문

- (추진 방향) ①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②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③ 생활 속 친환경 행동 실천 및 저탄소 공간 조성



<그림 V-3>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배출량(6,645.5천톤) 대비 16.5%(1,098.2천톤), 2033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23.0%(1,530.2천톤)²²⁾

22) BAU(자연감축량) 포함

<표 V-3> 건물 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단위 : 천톤)

구 분		2018년 (기준)	2025년	2030년	2033년
계획 감축량	①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	62.2	304.4	638.5
	②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27.2	56.0	73.5
	③ 친환경 행동 실천 및 저탄소 공간 조성	-	66.5	87.3	90.1
BAU(자연감축량)		-	512.9	650.5	728.1
총 감축량		-	668.8	1,098.2	1,530.2
감축율		-	10.06	16.53	23.03
감축 후 배출량		6,645.5	5,976.8	5,547.3	5,115.4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건물에너지 효율 향상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내·외부 단열 보강, 바닥 단열 및 난방 등)
 -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고성능 창호, 폐열회수 환기장치 등)
 - 히트펌프 시스템 도입 확대 및 가스히트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설치 지원
-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 빌딩 전환
 - 공공 및 민간 신축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의무화 시행
 - 제로에너지 건축물 최적화 컨설팅 지원
- 에너지 다소비 건물 총량제 도입 타당성 검토(정부정책 연계)
 - 도내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분석 및 배출허용기준 마련
 - 공공 건물 대상 시범 도입 및 민간 영역으로 확대 추진
 - 총량제 대상 건물 대상 기술 및 금융 지원
- 에너지 다소비 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정부정책 연계)
 - 기업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 설정
 - 에너지 효율 개선 계획 등 이행계획서 마련 및 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고효율 전자제품 전환
 - 냉장고, 세탁기 등 기존 전자제품을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 유도
 -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수요반응시스템(DR) 도입 확대
 - 도내 200kW 이하 가정 및 소형 점포 대상 국민DR 홍보 및 가입 확대

- 건축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ling) 활용 확대
 - 도내 공공건축물 대상 BIM 적용 실태 조사
 - 공공건축물 BIM 적용 의무화 단계적 시행 검토 및 인센티브 제공
- 도시열섬 저감사업 추진
 - 쿨루프, 옥상·벽면녹화 등 도시열섬 저감시설 확충
 - 전남 옥상·벽면녹화 확대 방안 마련(공공 → 민간)
-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
 - 열효율 92% 이상 환경표지인증 보일러 교체 비용 지원
- 빈집 그린 리모델링을 통한 나눔주택 지원
 - 전남도 빈집정비계획 수립
 - 그린 리모델링과 연계한 주택 개량 및 활용(임대주택, 창업공간, 문화시설 등)

②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

-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건물 지원사업) 확대(정부지원)
 -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신청
 - 미니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도 자체)
 - 도내 경로당(총 9천여개소)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3kW/5kW) 설치 지원
-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등에 고효율 LED 조명기기 교체비용 지원
- 농어촌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및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상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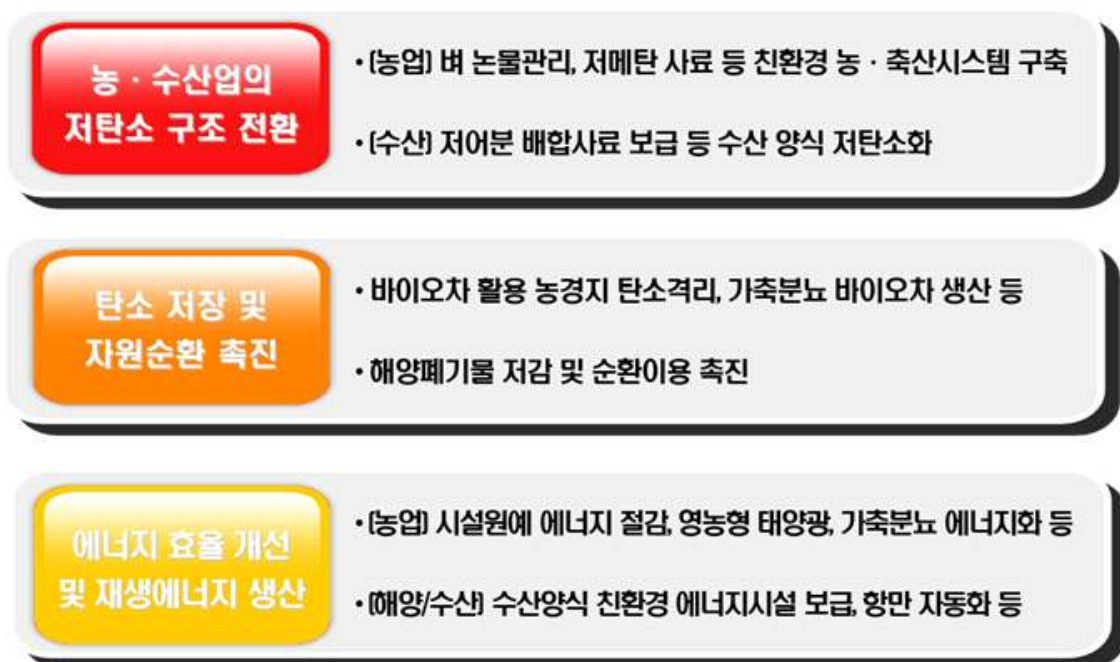
- 마을단위 LPG 저장탱크 및 배관망 설치
-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가능지역 및 잠재량 실태 조사
 - 도내 10층 이상 공동주택 대상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

③ 생활 속 친환경 행동 실천 및 저탄소 공간 조성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가입 확대
 - 도민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
-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정부정책 연계)
 -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 캠페인 전개
 - 기관별 절감 목표 설정 및 실적 모니터링
-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목표관리제 이행
 - 기관별·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 건물 에너지 성능 강화, 전기·수소차 전환, 녹색제품 의무화 등 시행
- 탄소중립 그린 캠퍼스/스쿨 조성
 - 환경부-대학간 그린캠퍼스 협약 및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학교별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이행
- 탄소중립 도시 조성
 - 에너지 전환, 도시 공간구조 등 시·군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전략 수립
 - 전남형 탄소중립도시 조성 컨설팅단 구성·운영
-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
 - 마을·공동체 단위 탄소중립 실천 마을 조성 공모
 - 탄소중립 실천 마을공동체 거점공간 조성 및 주민 친환경 생활 실천 지원

1.2.3 농·축·수산 부문

- (추진 방향) ①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② 탄소 저장 (격리) 및 자원순환 촉진, ③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그림 V-4> 농·축·수산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배출량(3,806.6천톤) 대비 26.8%(1,021.8천톤), 2033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7.8%(1,438.6천톤)²³⁾

23) BAU(자연감축량) 포함

<표 V-4> 농·축·수산 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단위 : 천톤)

구 분		2018년 (기준)	2025년	2030년	2033년
계획 감축량	①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	237.6	404.8	569.6
	② 탄소 저장(격리) 및 자원순환 촉진	-	16.5	58.0	91.7
	③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	120.5	335.6	507.5
BAU(자연감축량)		-	141.2	223.5	269.9
총 감축량			515.8	1,021.8	1,438.6
감축율			13.55	26.84	37.79
감축 후 배출량		3,806.6	3,290.8	2,784.8	2,368.0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 논물관리 적용 확대
 - 벼 이앙 후 중간물떼기 또는 중간물떼기 후 논물 얇게 걸러대기 등 친환경 논물관리 실행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센티브 지급(농식품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연계)
- 토양개량제(규산질 비료) 지원 확대
 - 토양개량 및 지력 증진을 위해 규산질 비료 구입비 지원
-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용 확대
 - 질소질 비료 대체를 위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 보급 지원
- 메탄저감 사료 보급 확대
 - 메탄저감 사료 개발 및 축산농가 보급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센티브 지급(농식품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 연계)
- 저탄소 축산물 인증 확대
 - 축산농가 대상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도 교육 및 홍보
 - 사양관리(조기출하, 저메탄 사료 급이 등), 가축분뇨 관리(강제 공기공급, 기계교반 등), 에너지 절감(저탄소 인증자재 사용, 태양광 축사 등) 저탄소 활동 지원
- 한우 비육기간 단축기술 보급
 - 도내 TMR 제조 축산농가 대상 한우 출하월령 단축 및 사양관리 기술 보급
 - 저탄소 축산물 인증 지원

- 저어분 배합사료 보급
 - 어종별 최적 아미노산 DB 구축 및 저어분 배합사료 등 저탄소 사료 개발
 - 도내 양식어가 대상 저탄소 배합사료 구매 지원

② 탄소 저장(격리) 및 자원순환 촉진

- 바이오차 활용 농경지 토양탄소 격리
 -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및 농경지 투입
 -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인센티브 지급(농식품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경종) 연계)
-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조성
 - 도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조성계획 수립
 -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 및 시설 조성
- 해양폐기물 저감 및 업사이클링
 -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시설 확충
 - 해양폐기물 업사이클링 추진(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전문기업 육성 등)

③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 지열 냉·난방 시스템 지원
 - 농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 연계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운영
-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보온, 열회수형 환기장치,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장치 등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운영
-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
 - 주민조합 주도의 SPC 설립 및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선 구매 및 발전수익 주민 환원
-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 차령, 사용연료, 사용시간 등 도내 농업기계 전수조사
 - 10년 경과 노후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등)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
 - 도내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 타당성 분석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철치 적지 선정
 -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설치·운영
- 친환경 선박 보급
 - 선종, 노후도, 활용도 등을 고려한 전남 친환경선박 전환 중장기계획 수립
 - 병원선, 순찬설, 어업지도선 등 관공선 하이브리드 추진선 전환
 - 노후 민간 경유어선 전기복합 하이브리드 어선으로 전환 추진
- 광양항 항만자동화시설 구축
 - 야드트랙터, 리치스태커 등 하역장비 전동화
 -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및 K-스마트항만 모델 개발
- 수산양식 친환경 에너지시설 보급(친환경수산물)
 - 해수열 히트펌프, 양식장 취수시설 인버터 등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시설 설치 지원
 - 양식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운영

1.2.4 환경관리 부문

- (추진 방향) ① 미활용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확대, ② 수자원 수요관리 강화, ③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매립지 흡수원 확충



<그림 V-5> 환경관리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 2030년 감축목표는 2018년 기준 배출량(1,340.9천톤) 대비 51.0%(683.9천톤), 2033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88.7%(1,189.3천톤)²⁴⁾

24) BAU(자연감축량) 포함

<표 V-5> 환경관리 부문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단위 : 천톤)

구 분		2018년 (기준)	2025년	2030년	2033년
계획 감축량	① 미활용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확대	-	72.9	551.1	1,009.3
	② 수자원 수요관리 강화	-	23.0	42.2	57.6
	③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	27.2	52.3	67.2
BAU(자연감축량)		-	8.4	38.3	55.2
총 감축량			131.5	683.9	1,189.3
감축율			9.81	51.01	88.69
감축 후 배출량		1,340.9	1,209.4	657.0	151.6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미활용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확대

-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광역·지방상수원, 농업용 저수지 등에 대한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 주민 이익 환원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 정수장 시설물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
 - 도내 상수도 시설 태양광 발전 잠재량 산정
 - 지붕, 반응조 등 상수도 시설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공공하수처리장 태양광 설치
 - 건물 지붕, 반응조 상부, 유휴공간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수열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 도내 수열에너지 잠재량 조사(이론적·지리적·기술적 잠재량, 적지 선정 등)
 - 수열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기존 장흥 탐진강 포함 3개소)
-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확대
 - 음식물폐기물,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혐기소화조, 열병합발전기 등)
 - 기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효율 개선
- 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설치 및 운영
 - (공공) 플라스틱 열분해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군 여건에 맞는 최적 열분해 시설 설치·운영
 - (민간) 여수산단 석유화학 기업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 등 플라스틱 재활용 인프라 구축

- 생활폐기물 소각로 열회수시설 설치
 - 소각로 후단에 열회수시설 설치 및 이용(전기, 스팀 등)
 - 시·군 신규 소각로 설치 시 열회수시설 설치 적극 유도

② 수자원 수요관리 강화

- 유수율 제고 및 지능형 상수도 시스템 구축
 - 관망도 전산화, 급수구역 계층화, 관망정비 등 누수율 저감 사업 지속 추진
 - 저탄소 지능형 수도생산 시스템 구축(AI 정수장, 스마트 관망관리 등)
- 물절약 사업 확대 추진
 - 물관리 기관(K-Water, 영산강청, 시·군 등)간 협력 강화 및 공공기관 절수 설비 설치 의무화
 - 절수기기 보급 및 물절약 실천 교육·홍보 확산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목포 남해처리장, 순천처리장 등 의무화 대상 시설 포함 4개소)
 - 하수처리수 이용 확대 및 신규 수요처 확보(산단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등)
- 빗물 및 중수도 재이용 확대
 - 빗물 저류조, 중수도 설비 등 물 재이용 시설 확충
 - 기존 용도(청소·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등) 외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 신규 수요처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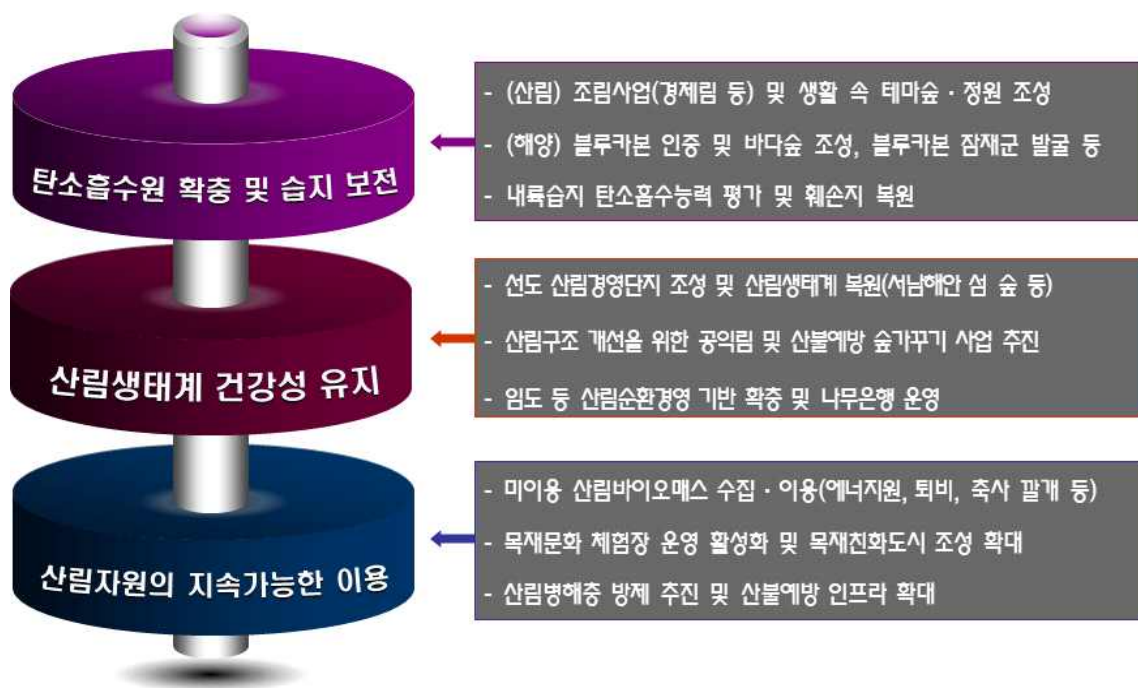
③ 자원 선순환 체계 구축 및 매립지 흡수원 확충

- 폐기물 발생량 원천 저감
 -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정착
 - 가이드라인 보급 등 업종별 폐기물 저감 기술 개발 및 보급 확대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확대, 공동주택 RFID 보급 확산, 감량기기 보급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저감
- 생활자원회수시설 등 폐기물 재활용 기반 지속 확충
 - 노후시설 개보수 및 폐쇄 후 신규 설치 등 생활자원회수시설 현대화
 - 재활용 동네마당,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등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 확대
- AI 분리수거 로봇 설치 확대
 - AI 분리수거 로봇 설치 확대 및 포인트 지급(1단계 시 지역, 2단계 군 지역)
 - 회수한 캔, PET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 전 공공기관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의무화
 -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확산
 - 농수산물 포장규격 가이드라인 마련, 로컬푸드 및 근거리 무포장 유통 등 포장 슬림화
 -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및 회수 활성화 및 일회용컵 보증금제 확대
- 현수막 공해 없는 전남 조성
 - 정당 현수막, 상업용 현수막 등의 사용제한 조례 및 기준 마련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단계적 의무화
 - 장바구니, 우산 등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및 보급 확산

- 탄소제로 에코백(Eco-Back) 캠페인 전개
 - 도내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대상 캠페인 전개
 - 재활용 가능 제품 사용, 커뮤니티 클린업 이벤트(줍깅 등), 일회용품 줄이기 도전, 1인용 화분 가꾸기, 제로 웨이스트 상점 제품 이용 및 홍보(친환경 기념품 등)
- 친환경 전통시장 조성
 -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우리 동네 전통시장 조성 사업(폐현수막 장바구니, 종량제 봉투 등)
 - 폐기물 저감 우수시장 등 친환경 전통시장 선정 및 시상
- 불법소각 관리 강화
 - 영농철 불법소각 점검 강화, 분리수거 기반(집하장 등) 확충, 농업 부산물 무상수거 지원 등 추진
 - 주민 교육 강화 및 연기 없는 마을 확대 조성
- 사용 종료 매립지 탄소흡수원 조성
 - 사용 종료 매립지 사후 활용계획 수립(태양광 발전시설, 탄소흡수원, 체육 공원 등)
 - 사용 종료 매립지 안정화 및 생태공원 등 녹색공간 조성

1.2.5 흡수원 부문

- (추진 방향) ① 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생태계 보전, ②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개선, ③ 산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그림 V-6> 흡수원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 2030년 총 흡수량 목표는 1,989.2천톤, 2033년 총 흡수량 목표는 2,001.7천톤²⁵⁾

25) BAU(자연 흡수량) 포함. 개발행위, 산림 노령화 등으로 자연 흡수량 감소 전망

<표 V-6> 중장기 흡수원 관리 로드맵

(단위 : 천톤)

구 분		2018년 (기준)	2025년	2030년	2033년
계획 흡수량	① 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생태계 보전	-	334.6	450.1	517.0
	②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개선	-	26.4	49.8	63.9
	③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	0.0	0.0	0.0
	합계	-	361.1	499.9	580.9
BAU(자연흡수량)		3,045.7	2,137.8	1,489.3	1,420.8
총 흡수량		3,045.7	2,498.9	1,989.2	2,001.7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생태계 보전

- 산림탄소생태사업 추진
 - 인증가능 산림탄소흡수원 발굴, 유지 및 증진
 - 조림·재조림, 식생복원, 산림경영 등 산림탄소상쇄사업 지속 추진
-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사업 추진
 - 목재생산림, 바이오순환림, 특용수 등 식재
 - 큰나무 공익 조림 및 산림재해 방지숲 조성
- 도민 힐링, 생활 속 숲·정원 조성
 - 주민단체 참여 숲정원,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 바람길숲, 자녀안심 그린숲 등
- 해안 방조제 재난대응 숲 조성
 - 방조제 주변 해풍·염해 방지 숲 조성, 식생기반 조성 등 경관 개선
-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 전남 비식생 갯벌의 탄소흡수 잠재력 분석 및 국제 인증 추진
 - 훼손 갯벌 복원 및 바다정원화 사업(해조류 이식 등) 추진
- 블루카본 잠재군 발굴
 - 해조류, 패류, 식물성 플랑크톤 등 잠재적 블루카본 자원 발굴 및 흡수량 산정
 - 국가 고유 흡수계수 개발 및 국제 인증 추진
- 내륙습지 탄소저장능력 평가 및 훼손습지 복원
 - 도내 습지 정밀조사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훼손 습지 복원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 확대

②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개선

-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 순천, 곡성, 보성 등 기존 선도 산림경영단지 활성화(조림·숲가꾸기, 벌채, 임도, 단기 임산물 등)
 - 신규 선도 산림경영단지 지정 추진
- 공익림 및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 어린숲 대상 풀베기, 큰나무 솜아내기, 하층 식생정리 등 생활권 주변 공익림 숲가꾸기
 - 산불 숲 관리 우선지역 선정 후 솜아내기, 간벌·가지치기, 낙엽긋기 등 연료물질 저감사업 추진
- 산림생태복원(서남해안 섬 숲 복원)
 - 도서지역 난대림 복원 및 권역별 테마숲 조성(역사, 문화, 생태 등)
- 임도, 임업기계 등 산림순환경영 기반 확충
 - (임도) 간선임도, 산불진화 임도 등 신설, 노후 임도 구조개선 등
 - (임업기계) 임업기계·장비 운전원 교육 지원, 고성능 임업기계 개발 등
- 나무은행 운영
 - 나무은행 수집장 조성
 - 병해충 방제, 수목 굴취 및 이식 등
- 토종 난대수종 발굴 및 보급
 - 향토 난대수종 신규 발굴 및 육종기술 개발, 기후적응성 및 탄소흡수능력 평가 등 토종 난대수종 선정·검증 및 평가
 - 토종 난대수종 시범단지 조성 및 수종갱신 추진

②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및 개선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및 이용
 - 수확, 숲가꾸기, 수종 갱신 등 벌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 적기 수거
 - 에너지원, 축사 깔개, 퇴비 등으로 재이용 및 신규 수요처 발굴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
 - 기존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목제품 공예,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
 - 목재문화체험장 신규 조성 및 전문 지도사 양성
-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친환경 목조건축 확대
 - 시·군별 목재친화도시 조성 방향 수립 지원
 - 목재특화거리 조성, 공공 목공체험센터 운영 등
 - 공공건축물 목조건축 시범사업 추진 및 기업 ESG 연계 목조건축 확산
-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산림병해(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해충(솔잎혹파리 등)에 대한 예찰 강화
 - 발생상황 조사 및 방제계획 수립·실행
- 산불예방 인프라 구축
 - 산불위험시기 주민 및 입산자 대상 집중 교육 및 홍보(표지판, 앱 등)
 - 산불에 강한 마을가꾸기 공모 및 인프라 구축(화재방지시설, CCTV 등)
- 산림드론감시단 운영
 - 산림드론 감시단 교육 및 채용
 - 산불예방 감시활동, 산림 내 불법행위, 무단입산 행위 등 산림감시체계 고도화

1.2.6 산업 부문²⁶⁾

- (추진 방향) ① 고탄소 업종(철강,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②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③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

1	철강 및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탄소저감형 고로 도입, 에너지 효율 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 등 · (석유화학) 바이오플라스틱 도입, 폐플라스틱 재활용, 가열로 대체, 촉매 개발 등
2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조선포 구축(탄소 모니터링 등) 및 에너지 다소비 기업 효율 혁신 등 · 폐플라스틱 자원화, 폐비닐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3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저감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저탄소 제품 인증, 스마트 공장 보급 등 지원 ·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전남형 기후테크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그림 V-7>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추진 방향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철강 및 석유화학의 저탄소 전환 촉진

- 그리노베이션을 통한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 (단기) 유연탄 사용량 저감을 위한 설비 개선,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 연·원료 대체(철스크랩 사용 확대 등) 등

26) 지자체 비관리 영역

- (중기) 제선 공정 개선(천연가스, 합수소가스 취입 등), 전기로 효율 증대,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완료
- (장기) CCU(탄소 포집 및 활용), 수소기반 환원제철 기술 전면 도입
- 석유화학 탄소제로를 위한 연·원료 대체 및 공정 개선
 - (원료 대체) 기존 나프타 대신 바이오 나프타나 수소 활용 올레핀 등으로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및 공급체계 확충
 - (연료 대체) 기존 가열로는 전기가열로로 대체, 기존 연료(석탄, 석유)를 부생 수소로 대체
 - (자원순환) 폐플라스틱 재활용 및 분해기술 개발(나프타 대체), 부생가스 전환 기술 개발 등
 - (공정 개선) 기존 설비 효율 향상, 나프타 저온 분해를 위한 촉매 개발, 디지털 전환기술 적용 등

②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선박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스마트 조선소 구축
 - 가상 조선소 플랫폼 구축, 빅데이터 기반의 최적 운영 조건 도출, 지능형 자율운영 조선소 조성(전 과정 시뮬레이션 검증 등)
- 에너지 다소비업체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 추진
 - 개별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 설정, 에너지효율 개선 활동 및 에너지 소비 실적 등 제출, 에너지 소비실적, 원단위 산출 및 검증, 우수 사업장 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 사업장 개선 권고 등
-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및 실증
 - 폐플라스틱 자원화 소재 개발 실증기반 조성(실증기반, 사업화 지원 등)

- 플라스틱 리파이너리²⁷⁾ 실증 플랫폼 구축
- 폐플라스틱 자원화 기술 사업화 및 보급 확대
- 폐비닐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술 개발 및 사업화
 - 분해성 고분자 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 분해성 고분자 소재 기술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및 보급
- 탄소중립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
 -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산업 공정부산물의 재자원화 기술지원
 - 산업 공정부산물 재자원화 기술 사업화 지원(컨설팅, 인증 등)
-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생태계 구축
 - EV·ESS 사용후 배터리 리사이클링 센터 구축(성능, 안전성 평가 등)
 - EV·ESS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기술개발 및 실증

③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

-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 지원
 -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정부 지원사업 등 최신 정보 제공
 - 시제품 제작, 친환경·저탄소 인증, 에너지 효율화 시설 구축 등
 -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인벤토리 구축 지원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ICT 미적용 및 Level1(기초) 수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대상 보급·확산 사업 지원
 - 진단·설계 컨설팅, ICT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교체 등 지원

27)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촉매 사용 등 정제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재자원화하는 기술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내재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CBAM 인증서 구매 등)
 - 공정개선, 연·원료 전환, 감축설비 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저탄소 전환 촉진
- 전남형 기후테크²⁸⁾ 스타트업 체계적 지원
 - 도내 기후테크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수요 기반의 R&D 추진기반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임무지향형(Mission-Oriented) 기후테크 육성 로드맵 수립 및 시행
 - 도내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 (1단계) 도내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발굴 및 지원(정책자금, R&D, 컨설팅 등)
 - (2단계) 에너지 밸리, 솔라시도 등 실증 자원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기술 검증 및 트랙 레코드 확보 지원
 - (3단계) 비즈니스 경쟁력을 갖춘 지역 기반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육성
 - 기후테크 융복합 인력 양성(융복합 교육 과정,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

28) 클린테크(에너지), 카본테크(탄소포집·산업), 에코테크(환경), 푸드테크(농식품), 지오테크(관측기후 적용)

2.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 대책

2.1 기후위기에 안전한 전남 조성

2.1.1 리스크²⁹⁾ 기반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 방향

□ 건강·보건 분야

- 기후변화 연관 매개체 감염병 감시망 운영 고도화
 - 전남 내·외부 감염병 실시간 모니터링 등 질병관리청-보건환경연구원간 감염병매개체 종합감시망 체계적 운영 및 도민 정보 제공
 - 지역 내 감염병 매개체 발생 우심지역 선정 및 특별관리(생리학적 지역 특이성 분석 등)를 통해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수인성 질환 감시 및 대응 역량 강화
 - 장티푸스, A형간염 등 수인성 질환 감시망 구축 및 정보 제공
 - 촘촘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경보 체계 구축
 -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지침 등 전문자료를 활용한 교육·홍보 활성화
-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역량 강화
 - 전수감시체계, 표본감시체계 등을 통한 신종감염병 조기 감시체계 구축
 -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의료 시스템 등 감염병 대응 위기관리 기반 구축
 - ‘(가칭)감염병 대응 플랫폼’ 개발 등 감염병 대응 R&D 추진
 - 지역 차원의 환경-동물-사람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원헬스 전략 마련

29) 물관리 10개, 생태계 18개, 국토 14개, 농수산 17개, 건강 13개, 산업·에너지 12개 리스크 중 우선 순위가 높고, 도내 영향도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을 선정하여 적응 능력 강화 방안 제시

- 기후·환경요인에서 기인한 심뇌혈관 및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
 - 폭염,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인자와 심뇌혈관 및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의 건강영향 평가(연관성, 기전 등)
 - 심뇌혈관 및 호흡기계·알레르기 질환 증장기 모니터링
 - 예방관리 지표 개발, 심뇌혈관질환 코호트 운영 등 기후·환경 취약계층 대상 관리 강화
 - 전남권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 종합적·입체적인 폭염 대응체계 구축
 - 전남도 및 시·군의 안전관리계획에 폭염 대응에 관한 비중 상향
 - 무더위 쉼터, 임시 그늘막, 쿨링 포그 등 폭염대응 기반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공공 및 민간사업장간 폭염피해 저감 거버넌스 구축·운영
 - ICT 기반 폭염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국토(재난·재해) 분야

- 기후탄력성 확보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
 - 전남도 및 시·군 대상 재해위험도 및 기후탄력성 평가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도내 재해위험지역 선별 및 관리(정기점검 강화, 조기 정비 등)
 - 저지대 도시재생, 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구축 등 기후변화 적응 방재 도시 조성

- 도로,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기후변화 대응력 개선
 - 도내 전도로를 대상으로 폭설,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 방어능력 분석 (안전성, 내구성 등)
 - 토사유입, 유실 등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대피·차단시설 운영
 - 배수시설 평가(적정용량, 연계 가능 여부 등), 오염물질 유입 방지시설 설치·운영, 노면수 연속배수시설 설치·운영 등 배수시설 유지 및 관리 강화
 - 도시계획과 연계한 배수시설 시스템 개선
 -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관리 및 상습 침수구역 하수도 인프라 확충
- 연안시설물 피해 최소화
 - 도내 연안시설물을 대상으로 재해 및 피해유형 분석
 - 연안시설물 성능평가 및 이력관리
 - 정기적인 연안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 물관리 분야

- 영산강·섬진강유역 홍수대응력 강화
 - 유관기관 홍수정보 공유, 수문 방류 예고제 확대 운영 등 댐 방류정보 전달 체계 강화를 통해 홍수 피해 최소화
 - 기상·수문정보, 수리시설물 정보 등을 연계한 홍수 예·경보 시스템 고도화
 - 미정비 지류·지천 등 홍수 취약하천 조기 정비
 - 평림댐, 섬진강댐, 도내 노후 저수지 등에 대한 안전성 강화 사업 추진 (차수벽 설치, 비상 방류관 설치 등)

- 드론, 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댐,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자원시설 안전관리 강화
- 유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가뭄대책 추진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중·소권역 단위 물수지(Water balance) 현황 분석·전망 및 물수급 대책 마련
 - 가뭄 취약지도 제작·활용, 가뭄정보 공유, 가뭄 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 지역의 가뭄 대응역량 강화
 - 하천 건천화 예방(하천 주변지역 투수면 확대, 지하수 함양량 증대 등)
 -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기능 저하 수리시설(저수지 등) 개보수 등을 통한 물부족 대응
 - 도서지역 등 물공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대체 수자원 확보
- 영산강·섬진강유역 물환경 보전 및 수생태계 건강성 강화
 - 지역 내 비점오염물질 발생원 및 배출특성 조사
 - 비점오염물질 발생특성을 고려한 저감시설(자연형, 장치형 등) 확충 및 성능평가 강화
 - 습지, 저류지, 인공섬, 수초 등의 조성을 통한 하천·호소 수질개선
 - 수생생물 열스트레스 평가기준 마련 및 유역 내 열스트레스 취약 하천에 대한 조사·평가

□ 생태계 분야

- 도내 생태계 변화상 모니터링 기반 구축
 - 생물 계절변화 지도, 기후변화에 따른 생리적·유전적 변화 등 생태계 정보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등 기후변화 취약 지표종 모니터링
- ‘(가칭)도민 생태계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도내 외래생물 등 생태계 교란종 유입경로 및 서식실태 조사
- 멸종위기종 등 주요 생물종 보호 강화 및 서식지 보존·복원
 - 자생 생물종을 대상으로 산림, 도서 등 도내 주요 생태지역에 대한 지표종 선정 및 모니터링
 - 멸종위기종 기후변화 영향 예측 모델 개발 및 적응 메커니즘 규명
 - 기후변화 취약 생물종 복원·증식 확대
 -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 생태계 단절·훼손지역 연결성 회복 등을 통한 생태계 건강성 강화
-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 및 증진
 - 이상기후로 인한 임산물 생산량 변화 모니터링 및 최적 생산지 변화 예측
 - 주요 수종 산지활착률 제고, 생산시설 현대화 등 지속가능한 임산물 생산 시스템 구축
 - 도내 주요 수종에 대한 탄소흡수량 장기 모니터링
 - 탄소흡수와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고려한 유망수종 육성 및 재배

□ 농·수·축산 분야

- 주요 작물 기후변화 영향 평가 및 기후변화 적응품종 개발·보급
 -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작물의 생산성 변화 분석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별 생산성 예측기술 개발
 - 주요 작물(식량, 과수, 약용 등)에 대한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방법 개발
 - 농업 피해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병해충 발생 예측·영향, 조기경보체계 등)

- 도내 주요 작물 재배 적지, 작부체계 실태 조사를 통한 작부체계 재설정
- 아열대 작물, 내재해성·내병성 신품종 등 개발 및 보급
- 지역 기후특성, 토양 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 재배기술 개발
- 가축 질병 예찰 강화 및 축사 에너지 효율 개선
 - 가축질병 사전 예방 및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과의 연계 강화
 - 기후변화 적응형 가축유전자원 개발
 - AI/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가축방역 시스템 개발 및 적용
 -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형 축사 기술 개발(냉·난방 및 환기, 물재이용, 폐열 활용 등)
- 농업시설물 피해 저감 및 농업용수 공급시설 안전성 강화
 - 축사, 온실 등 농업시설물 구조 위험도 평가 및 설계기준 개선
 -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시설물 구조 강화기술 개발 및 내재해형 농업시설 보급 확대
 - 저수지, 양·배수장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강화 및 노후 시설 성능 개선

□ 산업·에너지 분야

- 제조업·건설업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
 - 도내 사업장 기후변화 피해 이력관리 및 설계기준 재설정 검토
 - 분야별·산업단지별 기후변화 영향 평가 시범 도입
 - 제조업·건설업 기후변화 적응 매뉴얼을 작성·활용하고, 적용 범위는 기후 변화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 제조업·건설업 대상 기상 및 기후 컨설팅 지원
- 작업 안전,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 건물 내구도 등 건설분야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반시설 안전성 강화
 - 가정, 빌딩, 공장 등 에너지관리시스템(EMS) 확충
 - 기존 에너지원(전력, 가스 등)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발전 유연성 제고를 위한 ICT 기반의 통합에너지관제센터 구축·운영
 - UPS, 비상발전기, ESS 등 비상전원설비 구축 지원
 - 에너지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파악, 에너지 바우처 확대,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 등)
- 기후변화 적응 및 탄소중립형 녹색관광 기반 구축
 - 폭염, 폭설, 개화시기 변경 등 이상기후에 따른 도내 관광산업 영향 분석
 - 주요 관광지 기상·기후 모니터링 및 예보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광객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
 - 관광업계-정부-지자체-보험업계간 관광부문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거버넌스 구축
 - 기상·기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응형 관광 기반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광활동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및 재정비
 - 탄소중립 연계 여행(탄소)발자국 앱 개발 및 시범 운영

2.1.2 주요 공유재산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응 방안

□ 공용재산(공공건물)

- (영향) 청사, 학교 등 공공건물은 태풍, 호우, 강풍 등의 영향으로 유실, 파손,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하며, 최근 10년간('13~'22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남의 건물 분야 피해액은 123.6억원으로 분석
- 대응 방안
 - 방풍림 조성, 외벽 마감 강화(이상 강풍 대응), 방수 턱, 저층 차수판 등 설치(이상 수해 대응), 스노우 펜스, 적설 하중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이상 폭설 대응) 등 공공건물의 자연재난 예방설계 도입
 - 급경사지 등 산사태 위험지역 발굴 및 사면 보강, 산사태 예방시설 설치, 대피체계 마련 등 위험지역 관리 강화
 -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개선, CCTV, IoT 센서 등 디지털 기반의 통합 재난·재해 대응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장비 구비 등 재해예방 제도 및 인프라 구축

□ 공공용재산(항만시설)

- (영향) 기반시설(항로, 방파제 등), 운영시설(여객시설, 부대시설 등), 전기·통신·기계설비 등으로 구성된 항만시설은 호우, 강풍 등으로 호안 및 호안도로, 계류시설 등 시설물 파손, 도로 파손 등의 피해 발생
- (대응 방안)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설관리자의 기후 위기 적응역량 향상, 항만 이용자를 위한 상시 안전 환경 조성 등

<표 V-7> 항만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

구분	주요 내용
항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항만시설 위험요소 발굴 및 보수, 정기 안전점검 강화, 방파제 등 항만·어항 외곽 시설 보강, 부잔교 유지·관리 및 점검, 침수 예상 배후지 선제적 정비, 정전 대비 전기·기계설비 보수·교체 및 비상전원 확충, 재해 예·경보 시스템 운영 등
시설관리자 기후위기 적응역량 향상	매뉴얼 현행화 및 재난 대응 안전 교육·훈련, 긴급구조체계 구축, 온열질환 예방 물품 비치, 폭염시 살수차 운행 등
항만 이용자를 위한 상시 안전 환경 조성	항만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처를 위한 CCTV 운영 확대, 배후단지 내 공원 등 녹색공간 조성 등

□ 기업용재산(상·하수도시설)

- (영향) 집중호우, 태풍 등은 상·하수도시설의 붕괴, 침수 등을 야기해 정상 가동을 불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큰 피해 초래
- 대응 방안
 - (상수도) 고도처리시설 도입, 정수시설 및 가압장 개량, 배수지 증설, 관망 정비·교체 및 블록화,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지속 추진, 해수담수화 등 대체 수자원 개발, 도민 물절약 실천 등
 - (하수도) 하수관로 개량, 펌프장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하수관거 우수유통 방지, 침수대비 CCTV 설치 확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등

□ 보존용재산(문화유산)

- (영향) 태풍, 폭우, 폭염 등으로 문화재, 사적지 등 문화유산은 균열·변형, 물리적 분리·분해, 화학적 변질, 생물피해, 붕괴·소실 등의 피해 발생

○ 대응 방안

- 기후 영향 및 피해 유형 DB 구축, 훼손 시 복원을 위한 원형기록 보존, 기후 시나리오에 따른 영향 예측 등 정보 기반의 선제적 관리기반 마련
- 기후변화 취약성에 따른 문화유산 분류, 취약성이 높은 문화유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장마철·혹한기 등 기후노출 증가 시기에 특별점검 추진 등 기후위기에 대비한 관리 강화
- 비파괴 분석 기술, 복원력 성능 분석, 흰개미로 인한 목조건축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생물 피해 방제 등 핵심기술 확보

□ 공유 자연자원(국립공원)

- (영향) 호우, 폭염, 한파, 대설, 강풍 등으로 인해 시설물 붕괴, 안전사고 발생, 생물 서식지 파괴 등의 리스크 증가
- 대응 방안
 - 재난취약지역(급경사지, 산사태 발생지 등), 노후시설물, 기후변화 취약 시설(고지대 대피소, 계곡변 등)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서식지 조사·보전 및 훼손 서식지 복원, 특별보호구역 관리 강화, 생태계 교란생물 관리 강화, 기후변화 취약 생태계(종, 서식지 등) 모니터링 강화 등 생태계 적응 역량 증대
 - 입산 통제시설 운영 고도화, 국립공원 시설 이용에 대한 안전 교육 강화, 직원 대상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등 탐방객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2.2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 선도

- (추진 방향) 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② 전남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 ③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



<그림 V-8> 청정에너지 전환 방향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 도민상생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도민발전소) 지속 추진
 - 국·공유지는 공공주도, 사유지·공유수면은 민간주도의 2-track 재생에너지 모델('30년까지 태양광 5GW)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익 도민과 공유(인재육성기금 등 공익형 사업)
 -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도 조례³⁰⁾, 완도군 사례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 전 시·군으로 확대

- 석탄발전 제로화 및 무탄소 발전시설로의 단계적 전환
 - 호남석탄화력발전시설 폐지 및 친환경 연료 전환
 - 1·2호기 가동 중지(2021. 12월, 기 시행)
 - 연료전지 발전소(15MW) 운영, 천연가스 복합발전시설(1GW) 건설·운영 등
 - 여수석탄화력발전시설 가동 중단 대비 친환경 연료전환 계획 수립
 - 민간 석탄화력 및 LNG 발전시설 친환경 전환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청정수소 기반 연료전지, CCU 기술 적용 등

② 전남형 에너지 신산업 육성

- 해상풍력 융합 클러스터 조성
 - 전남 서남권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 공동접속설비 구축, 해상풍력기 설치(1,025개) 등
 -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개발 2단계 사업 추진
 - 지원부두 개발(철재부두 1선석, 3만톤급), 배후단지 개발(238천㎡ 규모)
 -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
 - 물류관리 프로그램 및 단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자재 항만운송 인프라 및 통합관제 장비 구축, 해상풍력단지 운영·관리 컨트롤타워 건립
 - 블레이드, 대용량 발전기, 터빈 시스템 등 해상풍력 요소기술 개발 및 실증
 - 산학관 협업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
 - 융합전공 개설 및 운영, 재직자 대상 O&M 교육, 계약학과 운영 등
- 청정수소 생산·이송 및 활용 생태계 구축
 - 전남형 수소도시 조성

30)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23. 12. 28. 제정)

- 연료전지 설치(공동주택, 건축물 등),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 구축(수소차, 수소 충전소 등), 수소이송 시스템 구축(파이프라인, 트레일러 등), 통합관제 센터 구축 및 실시간 정보 모니터링
- 청정수소 및 암모니아 혁신연구센터 운영
 - 알카라인, PEM, 고체산화물, AEM, 프로톤전도성 세라믹 수전해 기술개발 등
 - 전문인력 양성 거점 혁신센터 구축
- 500kW급 PEMFC 국산화 실증 및 인증센터 구축
 - 연료전지 국산화 실증 및 해외인증을 위한 평가장비 구축
-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에너지 섬-산단 모델 구축
 - 수전해시설, 액화플랜트, 수소선박, 접안시설, 수소 이송배관 등 구축
- 그린수소 기반 P2C(power to chemical) 실증단지 구축
 - 올레핀 등 그린수소 이용 화학물질 합성 플랜트 구축

③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차세대 전력망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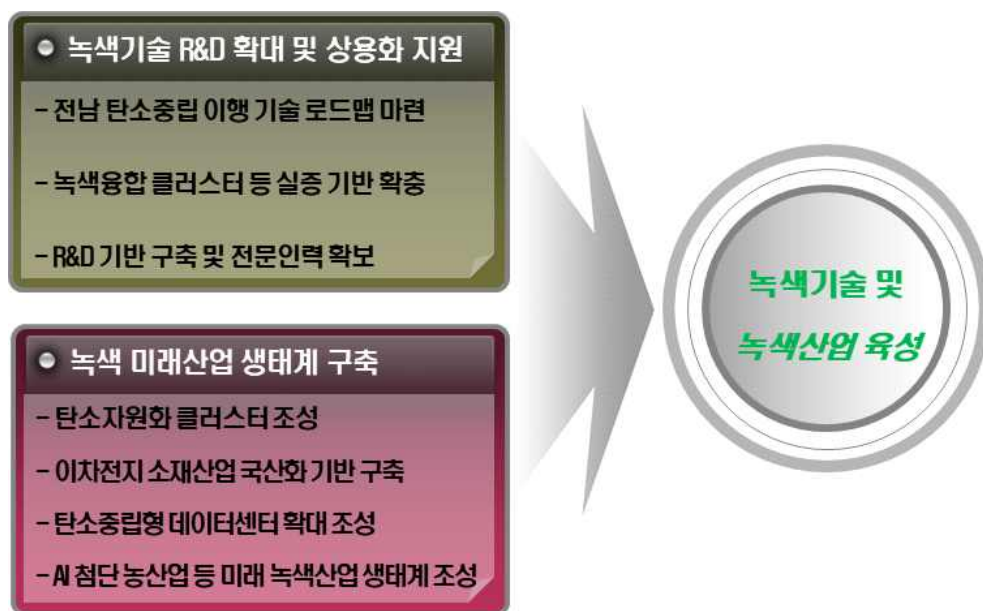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실증 확대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 전남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계획 및 특화지역 계획 수립
 - 분산에너지 통합발전소(VPP), 배전망 운영자(DSO) 제도 등 실증
 - 전력거래 특례, 발전·판매 겸업 허용 등 전기사업법 규제 적용 완화
 - 잉여전력 해소를 위한 전남형 에너지 통합 시스템 개발
 - P2G(power to gas), P2H(power to heat), P2X(power to X) 등 부문간 에너지 통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신재생에너지 기반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 개발(정부 공모)
 - 마을단위 독립형 전력망 구축(태양광/풍력, ESS 등 연계)
 - ‘○○마을 에너지 통합운영관리 플랫폼’ 구축
 - 주민참여 및 발전수익 공유 모델 개발
- 전라남도 에너지자립마을 인증제도 시행
 - 도내 에너지 자립마을 대상 접수, 에너지 자립률에 따른 등급 부여(1~5등급), 인증서 발급, 인증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 재생에너지 확산 대응 전력망 안전성 확보(정부정책 연계)
 - 서해안 HVDC 본격 착수 및 호남권 장주기 ESS 우선 조달(정부정책 연계)
 - 신해남-태안-서인천(430km)으로 이어지는 해저 송전선로 건설
 - 재생에너지 출력변동성 완화가 시급한 호남권에 1.4GW 규모의 ESS 우선 확보(~'26)
 - 주민 참여형 154kV급 이하 송·변전설비 확충
 - 주민 보상 현실화(단가 상향 등) 및 절차 투명성 확보
 - 양수발전소 설치
 - 대상 지역 : 구례 문척(500MW), 곡성(500MW)
 - 관광 및 주민복지 사업과 연계 추진
-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
 - 직류 전력망플랫폼 실증을 위한 거점 조성(CPS 활용 플랫폼 실증 테스트 베드 구축, 독일, 베트남 등 해외 실증 등)
 - 글로벌 인증센터 설립 및 운영(국제표준 개발, 글로벌 인증 지원, 개도국 기자재 수출지원 등)
 - 민관협력 해외진출 및 글로벌 스케일업 기업 지원(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강소기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등)
 - 맞춤형 인력 양성 및 국제표준 개발·인증 지원

2.3 녹색성장 육성·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2.3.1 녹색성장 촉진

- (추진 방향) ①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② 녹색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그림 V-9> 녹색성장 촉진 방향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녹색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전남형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마련
 - 탄소중립 기술개발 현황 분석, 전남 산업구조에 적용가능한 기술 선별 등
 - 전라남도 민관산학 탄소중립 기술혁신위원회 구성(에너지, 산업 등 8개 분과)
 - 전남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추진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갱신)

- 솔라시도 RE100 산업벨트 조성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 3GW급 솔라시도 발전단지 조성(~2050년) : 2050년까지 솔라시도 부동지구 및 초송·산이지구에 단계별로 영농형 태양광, 수상 태양광, 염해 태양광 등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산업용지 조성 및 RE100 기업 유치(데이터센터, 반도체, IT 등)
-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 관련 R&D, 실증, 사업화, 기업 지원 등 기반 구축
 - (실증화 시설) 제품 성능 고도화 테스트베드 인프라, 폐패널 자원화 친환경 처리, 시제품 생산, 금속회수 자동화 실증 등
 - (연구시설) 금속회수 자동화 기술, 폐패널 재사용 기술, 성능 개선 공정기술 등
 - (산업화 플랫폼) 성능 평가 및 안전성 진단, 업사이클링 사업화 모델 개발, 기업협업형 오픈랩 운영 등

② 녹색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

- 탄소자원화(CCU) 클러스터 조성
 - CCU 실증지원센터 구축(반응 장비, 시제품 실증, 시험·분석·인증 지원 등)
 - 탄소 포집 저장 및 이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액화·저장을 위한 인프라, CO₂ 이송 배관 및 해외 출하 인프라, CO₂ 포집 인프라 시설, 광물탄산화 파일럿 시설 등
 - CCU 핵심 기술 개발
 - 분리막 기술 적용 H₂/CO₂ 분리 공정개발 및 실증, CO₂를 원료로 올레핀, 납사 등 기초화학원료 생산 기술 개발 및 실증, CO₂ 합성가스 화학전환 기술 등

- 이차전지 소재산업 국산화 기반 구축
 - 이차전지 핵심소재(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공급 인프라 구축
 - 친환경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실증센터 구축
 -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 탄소중립형 데이터 센터 확대 조성
 - 솔라시도RE100 전용 산단내 데이터센터 집적화단지 조성
 - 40MW급 데이터센터 25개 동 조성
 - 하이퍼스케일클라우드 데이터센터구축
 - 40MW급데이터센터 구축, 클라우드 플랫폼 운영 등
 - AI첨단 기술과 연계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 AI 첨단농산업 통합플랫폼 구축
 - 국립첨단농산업 진흥원 설립
 - 첨단기술 활용 확대, 디지털 농업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첨단농산업 혁신 지원
 - 기술인·검증 및 평가, 농산업 벤처 육성, 스마트베드 실증, 농자재·에너지 연구 등
 - 한국농산업빅데이터센터 구축(유통·수출 플랫폼, 데이터 교류·협력 등)
 - 농산업-에너지 융합 실증단지 구축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력으로 지구 내 에너지 공급
 - 시제품 실증, 상용화(기술 고도화 및 인·검증), 현장적용 실증 등
-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
 -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 친환경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
 -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 향상기술 개발

2.3.2 전문인력 양성

- (추진 방향) ① 기후위기 대응 현장 실무인력 교육·훈련,
② 산업체 수요연계 전문 연구인력 양성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기후위기 대응 현장 실무인력 교육·훈련

- 협약형 탄소중립 특성화고 운영
 - 에너지·화학 등 관련분야 학부 3-4학년을 대상으로 녹색에너지연구원, 에너지 기업 등과 연계한 현장실습·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성장 분야로 사업 재편 또는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전략 수립 및 기술교육 지원
- 탄소중립 특성화대학원 지정·운영
 - 특화된 탄소중립 교육과정, 프로젝트 기반 실무교육 및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형 전문인재 양성(에너지 전환, 수송·건물 효율화, 산업 저탄소화 등)
 - 학-석사 통합과정, 계약학과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정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 수요에 맞춘 기술인력 양성
 - 협동과정 운영은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
 - 기존학과 과정을 통해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축적하는데 집중한 후 산업체 연계를 통해 교육-연구(실무) 연계 전략 마련

② 산업체 수요 연계 전문 연구인력 양성

- 기존 주력산업 직무전환 지원
 - 기존 근로자의 직무, 기술 등의 변화에 필요한 훈련과정 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분야별로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훈련을 통한 근로자 역량강화 지원
 - 녹색기술 경영혁신 분야 교육 참여시 교육비 지원 및 교육 수료자의 취업 연계 지원
 - 계약학과 운영 등을 통한 산업계 현장 수요인력 수요 대응 지원
 - 석유화학, 철강, 조선 분야 등 전남지역 산업계의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단기·중기과정의 실무연계 교육 및 재직자 역량교육 확대
 - 여수·광양 등 특화단지 입주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관련 수요맞춤형 기술교육 운영 지원
 - 목포해양대학교, 현대삼호중공업, 대한조선, 대불산단 조선기업 등과 협력을 통해 친환경 선박 분야 인력 수급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운영
 - 산업구조 변화 대응 훈련수요 발굴 및 훈련지원
 - 전남TP, 산학융합원 등 지역 유관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기존 기업 재직자 대상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별 기술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녹색융합 기술인재로 전환 지원
 - 농수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인력 양성
 - 전남이 강점을 갖고 있는 농·수·산림자원을 활용해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
 - 탄소흡수원 특성화 대학원 등 설치를 논의하여 미래 농수산림분야 인재양성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 및 농업인의 기술 역량강화 지원 확대
 - 전남농업기술원,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등을 통해 기상, 환경, 토양,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농업인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 연구인력 육성
 - (가칭) 탄소중립 공정혁신연구실 운영 지원

- 대기업 협력기업, 지역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대학의 산학협력, 공동R&D 추진을 위한 탄소중립공정혁신연구실을 기업매칭 대학 내 개설
- 연구실을 중심으로 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및 기업체 종사자 교육 연계 지원
- 산학협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석박사 대상 특화분야 교육 및 연구과제 발굴·운영
- 기업 수요 맞춤형 R&D전문인력 양성 지원
 - 탄소중립 공정혁신연구실의 기술개발 과제를 기반으로 하는 R&D 기반 석·박사 인력 양성 추진
 - * 탄소중립 관련 공정 혁신, 전환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연구실 내 교수·학생 및 혁신기관 공동 개발
 - * 단순교육과정 운영이 아닌 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의 운영을 통해 향후 기업문제 해결 능력 향상 유도
 - 탄소중립 공정혁신연구실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공동기술개발 자금 일부 보조를 통해 초기 참여 및 지속적 산학협력 유도
 - * 기존 대학, 대학원 과정에서 응용에 필요한 기초역량을 축적하고 이후 연구경력 등에 따라 핵심인력으로 성장하는 경력개발 과정 설정

2.4 모두에게 공정하고 포용적인 탄소중립 추진

□ 에너지·전환 부문

- 유연한 녹색 전환 및 신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전남 서해안 그린에너지 벨트 조성, 전남 RE100 전환 지원센터 설립, 국립 해상풍력 에너지연구소 설립, 대용량 수전해 스택 개발 및 그린수소 실증 등
- 에너지 공기업과의 협업 강화
 -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및 안전성 강화
 - 지역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한 전력부문 핵심 R&D 추진
 -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을 위한 도내 실증 강화
 - 지역 에너지 생산·수요 분산화 및 탈탄소화
-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강화
 - 에너지 취약계층 기준을 토대로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규모 산정
 - 도내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 이용 실태 조사
 - 거주 주택 유형, 도시가스, 전력 평균 지출액, 주로 사용하는 냉난방 기기 등
 - 한파 대비 필요한 지원(난방비, 난방기기, 주거단열 등), 폭염 대비 필요한 지원(냉방비, 냉방기기, 보조용품 등) 등
- 촘촘하고 두터운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 직접 지원(가격, 요금 등)과 간접 지원(난방·단열 개선 등) 병행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탄소중립 시책과 연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
 - 공공기관, 대기업 등과 연계한 에너지 복지사업 확대(도-한전 간 지역 협력형 사업, 기업 ESG 경영 등)

□ 산업 부문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확보 및 중소기업 지원
 - 석유화학, 철강 등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검토
 - 도비 및 시군비를 통해 기금 우선 조성 후 중소기업 지원
 - 발전사업자, 대기업 등의 기금 출연 유도
- 탄소중립 산업영향 실태조사 및 연구개발 추진
 -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부문 영향 평가 및 취약 업종 도출
 - 대기업 위주의 탄소중립 추진 시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의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필수적으로 연구하도록 제도 설계
 - 중소기업과 대기업 상생형 탄소중립 사업 발굴 및 연구개발 추진 등
- 생산공정 전환 연구개발 확대
 - 지역산업진흥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탄소중립 생산공정 전환 연구 개발사업 반영
 - 기존 산업의 생산공정을 탄소중립 기조에 맞도록 전환하는 연구개발 사업과 기업 지원사업을 법정계획에 포함
 -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환에 대한 사업 집중 발굴
- 노사민정 탄소중립 협의체 운영
 - 현재의 노사민정협의회 분과위원회로 탄소중립 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참여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관련 동향을 알리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
- 공정 전환을 위한 도-시·군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각종 연구개발사업,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기업 참여 독려
 - 노동자들의 참여를 통해 공정한 전환에 대한 지역 요구 반영의 장으로 활용

□ 농어업 부문

-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지자체 역할 강화 및 이익공유 활성화
 -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정립, 주민수용성 및 환경성 사전검토제도 도입 등
 - 조례, 지침 등 이익공유 법적 근거 마련
 - 시·군 특성,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이익공유 체계 마련
- 발전사업 등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역량 강화
 - 사전 의사소통 절차 및 주민 참여 의무화 등 근거 마련
 - 사업자-주민간 양방향 소통체계 구축
 - 공공기관 컨설팅, 선진지 견학, 교육·홍보 등을 통해 주민인식 개선 및 참여 활성화
-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농·어가 손실 보상제도 마련
 - 농어업 부문 저탄소 기술 도입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의 손해 발생 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전남형 탄소중립 농업직불제도 도입
 - 저탄소 기술과 연계한 생산성 유지·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
 - 기술 개발(안) : 가축분뇨 대체비료 개발 및 지원, 맞춤형 최적 물관리 매뉴얼, 논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 친환경 양식장, 저어분 배합사료 적용 등
- 후계·청년 농어업인 대상 저탄소 기술보급 확대
 - 기술 수용력이 높은 후계·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저탄소 기술 보급
 - 탄소중립·기후변화 교육 확대, 스마트팜·스마트양식 기술 개발 및 실증, 농업·수산 탄소 발자국 산정 등

□ 고용·노동 부문

- 일자리 정책에 공정한 노동전환 개념 적극 도입
 - 전남 일자리 종합계획에 공정한 일자리 내용 포함
 - 재직자 역량강화, 직무전환, 전직, 재취업 준비 지원,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 고용 위기대응 지원방안 등
- 정책영역별 공정한 고용·노동전환 실천계획 수립
 - (녹색일자리)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 녹색일자리 협약 등
 - (녹색기술) 녹색기술 모니터링 및 피드백, 교육·훈련 격차 해소 등
 - (고용유지) 노사간 고용유지협약,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 (전환인력 고용) 교육훈련비용, 생계비 등 맞춤형 지원정책 연계
 - (재원확보)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 재정적 기반 마련
 - (지역 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중앙-지방 협력, 사회적 소통 강화 등
-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확대 및 고용전환플랫폼 설치
 - 노(교육훈련 참여, 탄력근로 등)-사(고용, 투자, 근로환경 등)-민(기업 제품 구입, 기업 홍보 등)-정(근로자 및 기업 지원 등) 상생 협력
 - 전남노동전환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노사 파트너십, 노사 상생형지역일자리, 일터혁신, 재취업지원 등 추진
- 탄소중립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제 도입
 -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고용 점검·평가 및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 마련
 - 예산 투입 대비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 우선 추진
 - 향후 전남 고용창출 지원정책 수립 근거로 활용

□ 추진 기반

-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정의로운 전환 내용을 강화한 탄소중립 기본조례 개정
 -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내에 위원회, 기금 등에 관한 사항 구체화 검토
 - 충남의 경우,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마련해 시행 중
 -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에너지·산업 분과위원회에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남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추진정책 논의
 - 또는, 위원회 내 ‘(가칭)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남의 정의로운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방안 검토
- 전남의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지역, 산업, 고용 영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영향(피해)을 받는 지역·공간, 산업·경제, 인적 요인에 대한 실태조사
 -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한 3가지 기준(지역, 산업, 인적요인)을 토대로 영향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전라남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전남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 산업, 노동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계획 수립
 - 이해당사자,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³¹⁾

31)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제5조

○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협력 채널 구축

-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

- 정의로운 탄소중립 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구성원간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수
- 노사민정위원회, 전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 에너지·산업분과 위원회(또는 정의로운 전환 특별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채널 다각화

- 전남 고탄소 업종의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설치·운영

- ‘(가칭)철강 녹색전환 포럼’ 등 고탄소 업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체계를 마련하여, 공동 대응 방안 마련

- 사회적 대화 논의 결과 이행 및 전남형 상생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심의·의결된 사항이 전라남도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성이 확보된 경우 제도 및 예산 지원을 통해 정책적 실행력 확보
- 광양만권 녹색전환, 서남해안 해상풍력 일자리 창출 등 전남형 녹색일자리 모델 개발

○ 정의로운 탄소중립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피해 지역·산업·인적요인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남 기후대응기금 활용

- 「전라남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용도)에 정의로운 전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중장기적으로 충남과 같이 별도의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용 검토

- 기금 규모, 기한, 용도, 지원 범위 등 설계
- 해당 시·군과의 역할 분담(기금 출연, 지원 등)
-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2.5 국내·외 협력 강화

□ 국내·외 지방정부간 탄소중립 분야 교류·협력 확대

- 광주, 남해안남중권 등 국내 지자체간 협력 강화
 - (광주) 민선 8기 탄소중립·에너지 대전환 기후동맹의 건실한 이행
 - (남해안남중권)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협력
 - 연안습지 블루카본 인증 확대, 광양만권 광역교통 및 물류시스템 구축, 광양만권 전력·수소·이산화탄소 등 유틸리티 하이웨이 구축 등 신규 과제 발굴
 - 기타 분야별 자치단체 교류·협력
 - 전남-경북-충남간 그린철강 협력, 전남-울산-충남간 석유화학 넷제로 협력 등
- 미주리, 오리건(미국), 산시성, 저장성(중국), 고치현(일본) 등 기존 자매결연 지자체들과 기후·에너지 분야 연계 협력

□ 탄소중립 분야 국제회의·행사 유치 및 탄소중립 이슈 의제화

- COP33,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등 국제회의 유치 추진
- UNFCCC 당사국총회,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등에서 전남의 이슈 논의
 - 이슈(안) : 해상풍력발전단지, RE100 산단, 연안습지 블루카본 인증 확대 등

□ 탄소중립 특화 전략과 연계한 국제협력 추진

- (철강, 수소환원제철) 일본(일본제철 등), 독일(티센크루프 등), 스웨덴(SSAB 등), 중국(상하이강철편 등) 등

- (석유화학) 독일(BASF 등), 사우디아라비아(SABIC 등), 미국(Dow 케미컬 등) 등
- (해상풍력) 영국(Hornsea 등), 덴마크(미들구룬덴 등), 중국(하이난 완닝 등) 등
- (블루카본) 중국 하이난 거래소(블루카본 거래) 등

□ 한전, KENTECH, 출자·출연기관 등과 연계한 국제협력 추진

- (한전) 독일 Fraunhofer, 영국 ARM(반도체 기업), 미국 EPRI(전력연구원), 일본 TEPCO(도쿄전력), 중국 화능집단공사 등
- (KENTECH) 미국 델라웨어대학, UC 버클리, 독일 Linde,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PIK) 등
- 캐나다국가연구위원회, 토론토대(녹색에너지연구원), 산시성 사회과학원, 절강성 사회과학원(전남연구원) 등

2.6 인력양성 및 인식 제고

□ (추진 방향) ① 기후·환경교육 내실화, ② 소통 및 실천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추진 방향별 세부사업

① 기후·환경교육 내실화

- 탄소중립학교 운영 확대
 - 탄소중립 선도학교 운영 단계적 확대
 - 환경교육 연수 강화 및 환경 관련 학습동아리 활성화
 - 환경교육 컨설팅 전문인력 양성 및 찾아가는 환경교육 컨설팅 추진
- 지9하는 학교·기관³²⁾ 정착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구인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 1교(기관) 1집중 실천행동으로 탄소중립 실천운동 생활화
 - 희망 학교(기관)를 대상으로 집중 실천행동 선택 및 자체 선언식을 통해 실천 습관 강화
- 찾아가는 기후학교 확대 운영
 - 유치원, 초·중·고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확대
 - 프로그램(안) : 기후변화 이해하기, 생활 속 지구 지킴이, 체험 프로그램 등

32) 지구를 구하는 9가지 실천행동을 하는 학교(기관)의 줄임말로 전남교육청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대표 과제

-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활성화
 - 유아기부터 성인후기(노년)까지 전남도민이 시기별로 필요한 환경교육의 주제와 내용, 실행 방안을 담은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계획 수립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환경교육 프로그램 융복합화 추진
 - 평생학습 기관 및 자원봉사와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교육·활동 등 확대
-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 지역 활동가의 주제별(기후위기,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저감 등),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
 - 지역 거점별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학습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향후 지역 대표 환경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연계
 - 환경교육 현황조사 및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도내 환경교육 기관·단체의 환경교육 현황, 인력 파악하여 양성된 환경전문 강사들의 활동기반 마련
- 전남 탄소중립 교육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교육포털 운영
 -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교육 주체간 협력체계 강화
 - 지자체, 교육청, 환경관련 기관·단체 등 환경 교육 주체간 전남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성
 - 전남 환경교육시설, 교육단체, 프로그램, 환경관련 통계 등 환경교육 관련 종합 DB구축 지향, 전남도,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과 연계를 통한 활용도 제고
 - 환경교육자료 및 시설을 DB화한 (가칭)전남 환경교육 포털 구축·운영을 통해 강사, 기관 및 도민의 교육자원 접근성 제고

②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및 실천 강화

- 탄소중립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웹툰·영상 공모전 개최

- 탄소중립 생활실천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사업화 지원
- 탄소중립 웹툰·영상 공모전 추진
- 탄소중립 실천 집중주간 운영 및 캠페인 추진
-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지원
 - 마을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기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추진
 - 탄소중립을 위한 청년활동가 양성으로 연계
-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한 탄소중립 실천 활동 추진
 - 지역별, 대상별 활동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지원체계 구축, 기획 및 브랜딩 교육 기회 제공
 - 자원순환, 환경문제 등 지역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공공부문 탄소중립 실천역량 강화
 - 공무원 등의 분야별 직무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등 환경관련 교육 내실화
 - 기관별 기후·환경교육 실천계획 등 실천 역량 강화 유도
- 교육·체험, 실천 등을 위한 거점시설 확충
 - 광역 환경교육센터와 연계해 시·군 특성에 맞는 기후환경 교육센터 설치·운영
 - 에너지전환 활동가 양성, 녹색아파트 전환, 햇빛협동조합, 탄소중립 배움터, 에너지·탄소중립 홍보관, 제로 웨이스트샵 등 운영
 - 리필스테이션(에코스토어), 플라스틱 은행 등 생활 속에서 주민의 녹색생활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형 탄소중립 시설 확대

3.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15대 핵심 사업

3.1 혁신선도형 사업

- ① RE100 산업벨트 조성으로 산단 4.0³³⁾ 구현
 - 기업도시(구성지구) 내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탄소중립 기반시설 조성 및 RE100 수요기업 유치(IT, 배터리, 데이터센터 등)
- ② 명품 숲 조성 등 5억 그루 나무심기('50년) 조기 달성
 - 경제림, 큰나무 등 조림사업 지속 추진 및 도민 힐링 테마숲·정원 조성
 -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서비스 기반 확충
- ③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햇빛연금, 바람연금) 확대
 - 도 조례를 바탕으로 22개 시·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 제도화
 - 조합 설립·운영 컨설팅, 선진지 견학,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등 주민 역량 강화사업 추진
- ④ 전남형 탄소중립 농업직불제도 도입
 - 농식품부 탄소중립 프로그램(저탄소 영농활동 지원) 시범사업 참여 확대
 - 저탄소 영농활동 유형 확대, 도 및 시·군 지원금 확대 등 전남형 탄소중립 농업직불제도 도입
- ⑤ 글로벌 블루카본 중심지 도약
 - 연안지역 블루카본 자원 DB 구축 및 국제인증 추진
 - 실증연구센터, 바이오소재 산업화 등 블루카본 R&D 및 산업화 기반 조성

33) 산단 1.0(공업 중심) → 산단 2.0(정보통신산업 중심) → 산단 3.0(4차 산업혁명) → **산단 4.0(탄소중립)**

3.2 선진시스템 도입형 사업

- ① 남도패스(전남형 K-패스) 및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단계적 시행
 - 국토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K-패스) 전 시·군 도입 및 남도패스 사업모델 개발·시행
 - 군 지역 농어촌 무료버스 운영 확대 및 권역별 광역 무료버스 시범 운영
- ②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내재 배출량 산정, 보고서 작성, CBAM 인증서 구매 등)
 - 공정개선, 연·원료전환, 감축설비 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한 기업의 저탄소 전환 촉진
- ③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시설 에너지 자립화 조기 실현
 - 시·군 운영 환경시설의 에너지 소비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실태 기초조사
 - 전남 환경시설 에너지 등급 기준 마련 및 시설별 에너지 자립률 목표 설정
 -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물일체형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등 지원
- ④ 에너지 다소비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
 - 도내 건물 유형별 온실가스 표준배출기준 설정 및 배출목표 부여
 -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1천㎡ 이상 공공건물) 및 본사업 추진(공공 확대 및 민간 자율 참여)
- ⑤ 공공부문 전기차 의무 전환 및 시외버스의 단계적 수소화
 - 도내 모든 공공기관의 차량 구입·교체시 전기·수소차로 구매 및 임차 의무화
 - 전남 시외(고속)버스 수소버스 전환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추진

3.3 도민체감형 사업

① 1회용품 제로존(Zero Zone) 확대 운영

- 공공기관 및 청사 내 커피전문점 1회용품 사용 제한
- ‘1회용 비닐봉투 없는 전통시장’, ‘1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등 확대 시행
- 음수대, 다회용기 및 수거·세척기, 장바구니, 종이봉투, 빗물제거기 등 보급

② 탄소제로 에코백(Eco-Back) 캠페인 전개

- 사회복지시설 대상 탄소중립 생활 실천 캠페인 전개
- 5대 실천 캠페인(안) : ① 재활용품 사용(텀블러 등) / ② 커뮤니티 클린업 이벤트(줍깅 등) / ③ 일회용품 줄이기 / ④ 1인용 화분 가꾸기 / ⑤ 제로 웨이스트 상점 제품 이용 및 홍보(친환경 기념품 등)

③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3kW 규모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지원

④ 현수막 공해 없는 전남 조성

- 정당 현수막, 상업용 현수막 등의 사용 제한을 위한 조례 및 기준 마련
-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의무비율 단계적 확대 및 폐현수막 업사이클링 활성화(에코백 등)

⑤ 시·군 기후환경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1시·군 1센터 운영)

- 시·군 또는 마을 단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등의 체험 및 교육·홍보를 위한 거점시설 설치·운영
- 기존 환경교육센터³⁴⁾ 등과 연계해 친환경 체험장(태양광 조형물 등), 캠페인 전개(제로 웨이스트 등), 활동가 양성 등 주민 체감형 프로그램 추진

34) 광역 환경교육센터(3개소) : 자연환경연수원, 가시리 생태관, 섬생태 연구소

VI 추진체계 및 소요예산

1. 추진체계

□ 사업추진 기반 구축

- 기후변화 대응 실행력 제고 및 광역-기초간 연계·협력 추진을 위해
기 제정된 기본조례를 토대로 전남도 및 시·군의 관련 조례 개정
 - 전남도 본청 조례(현행 914개) 중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성을 지닌 조례 검토 및 개정 추진
 - 기후변화 대응과 연관성을 지닌 시·군 조례 개정 및 제정 추진
-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정부 부처별 가이드라인 추진에 맞춰
지역 차원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녹색성장 및 저탄소 기반 조성 등 제 부처의 관련 제도 및 시범(선도)사업 추진에 부합한 세부 지침 마련
- 관련 행정계획의 실질적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간 연계성 강화
 - 전라남도 종합계획, 환경계획, 자원순환시행계획, 지역산림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기후대응기금, 녹색예산제 도입 등 추진기반 마련
 -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영향 최소화 및 감축 대안 마련

- ‘(가칭)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
- 광양만권 등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 기존 탄소중립기본법과의 차별성,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 필요성, 이들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등 제시

□ 기후변화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각 부문별 이해관계자와의 협력형 거버넌스 기능 확대
- 전남도-시·군 간 정책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위해 ‘(가칭)탄소중립 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군 참여 및 연계·협력사업의 논의 및 공동 추진, 시·군 정책지원사업의 발굴 및 국비 사업에 공동 대응
- 전남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할 전담 지원기구 운영
 - 전라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해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원 등 효율적 추진
 -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확대 및 센터간 연계 강화
-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해안남부권 초광역적 교류·협력 추진

- 중장기적으로 부산·울산·경남 등과 남해안남부권 기후변화위기 대응 TF 구성·운영으로 관련 정보교류, 관리 및 개선사업 추진 등 공동협력 강화
- 도민 탄소중립 정책 디자인단 구성 및 운영
 - 도민 체감형 탄소중립 정책 개발, 정책의 기획-실행-평가-환류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기본계획 이행점검 체계 구축

- 매년 기본계획의 세부사업별 자체 이행평가 진행
 - 탄소중립 총괄부서인 기후대기과와 사업 추진부서, 전남탄소중립지원센터간 협업체계 구축
 - 추진상황은 총괄 및 세부사업 목표지표를 활용해 점검
 - 총괄 목표지표(안) : 온실가스 감축목표 대비 실적,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등
 - 세부사업 목표지표(안) : 온실가스 감축목표대비 실적(정량사업), 성과지표 대비 실적(정성사업), 예산 계획 대비 집행 실적 등
-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사업 성과점검 보고회 정례화
 - 전년도 추진사업 결과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보고회 개최
 - 지역주민,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학민관 협력거버넌스 구성해 평가의 정확성 및 객관성 제고
- 전남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제출
 - 성과점검 보고회 내용을 수정·보완해 전남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요청
 - 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부 제출
- 개선 의견을 반영해 도의회 심의 요청

2. 소요예산

□ 온실가스 감축대책

- 수송 19개, 건물 21개 등 총 97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간(2024~2033년) 소요예산은 30.4조원으로 추정
 - (재원별) 국비 14조 431억원(46.1%), 지방비 12조 3,717억원(40.6%), 민자 등 기타 4조 287억원(13.4%) 순
 - (부문별) 수송(13.5조원), 건물(12.2조원), 농축산(2.0조원), 환경관리(1.7조원), 흡수원(1.1조원) 등의 순
 - (연도별) 2024년 2.31조원을 시작으로 2033년 4.39조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

□ 기후위기 대응기반

- 기후위기 적응 19개, 청정에너지 8개 등 총 58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0년간(2024~2033년) 소요예산은 67.3조원으로 추정
 - (재원별) 국비 1조 3,203억원(2.0%), 지방비 8,770억원(1.3%), 민자 등 기타 65조 883억원(96.7%)로 구성
 - 분야별로는 청정에너지 분야(64.9조원)가 총 소요예산의 96.5%를 점유
 - 녹색성장 및 인력양성(1.5조원), 기후위기 적응(0.8조원) 등의 순
 - (연도별) 2027년이 6.85조원으로 가장 많았고, 2032년이 6.56조원으로 가장 적었음.

3. 정책제언

□ 온실가스 인벤토리 정확도 향상 및 활용도 제고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시범사업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도 개선 필요
 - 2022년 인벤토리 통계와 2023년 인벤토리 통계 불일치
 - 명확한 인벤토리 산정 기준 설정 및 지자체간 공유 필요
- 지역 단위 온실가스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운영
 - 현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배출 특성 파악에는 활용 가능하지만 감축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계
 - 감축 활동과 연계 가능한 지역단위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 온실가스 관리구조 단계적 개편

- 이원화되어 있는 온실가스 관리구조³⁵⁾ 개선 필요
 - 산업, 에너지(전환) 부문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을 수 밖에 없음.
 - 중앙-지방간 온실가스(에너지)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이행 구현

35) (현행) 중앙정부-산업, 에너지(전환) / 지자체-수송, 건물,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비산업



<그림 VI-1> 현행 온실가스 관리 구조

□ 기본계획간 연계성 강화

- 국가 및 지자체 계획간 성격 통일
 - 시나리오 기반의 국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 성격의 지자체 기본계획 성격 상이
 - 국가 기본계획의 부처별·부문별 상세 사업계획 및 감축 가능량 제시 필요
- 감축원단위 기반의 계획 수립체계 개선
 - 현행 기술만으로 탄소중립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³⁶⁾을 고려했을 때 과거 사례, 경험 등을 토대로 도출된 감축원단위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임.
 - 향후 기술 발달 등을 고려해 지자체 기본계획에서 누락된 감축사업 포함 등에 대한 기준 필요

36) IEA(2021), Net Zero by 2050 : A roadmap for the global energy sector